석 사 학 위 논 문

북한의 대남테러리즘 위협분석과 전망

2012년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 보 전 략 학 과

국 방 정 책 전 공

박 현 령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김응수

북한의 대남테러리즘 위협분석과 전망

Against the south terrorism threat analysis and prospect of North Korea

2011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 보 전 략 학 과
국 방 정 책 전 공
박 현 령

석 사 학 위 논 문
지도교수 김응수

북한의 대남테러리즘 위협분석과 전망

Against the south terrorism threat analysis and prospect of North Korea

위 논문을 안보전략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 보 전 략 학 과
국 방 정 책 전 공
박 현 령

박현령의 안보전략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북한의 대남테러리즘 위협분석과 전망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국방정책 전공
박 현 령

현재 국제사회는 강대국 간의 전면전 가능성은 현저히 감소했지만 자원, 민족, 종교, 영토 등의 분쟁요인들에 의한 테러의 가능성은 점차 증가 하고 있다. 복합적인 분쟁요인이 얽혀 있는 한반도의 경우, 북한이라는 비정상적인 국가체제에 의해 대남테러가 자행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반세기동안 끊임없이 감행해온 대남테러를 통해 때때로,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을 증대시켜 왔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안보는 더욱 알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으며, 특히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과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그리고 최근에는 '농협 전산망 마비'로 인해 북한의 정책성 대남 테러리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2012년도에는 우리나라 및 미국의 대선 등 국제 환경변화와 핵안보 정상회담 등이 예정되어 있어 북한은 이 시기를 강성대국으로 치닫는 요소를 추가하기 위한 협상의 수단으로 대남 테러를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배경은 북한의 대남테러리즘이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낳는다. 북한의 대남테러 위협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의 대테러 방안연구와 굳건한 국가안보태세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대남테러리즘의 특징과 위협을 분석하여

향후 북한의 테러리즘을 전망함으로써 간과되고 누락됐던 현상에 대해 되짚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한반도의 안정과 크게는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견고한 안보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북한 테러리즘의 특징을 대남 혁명 전략을 고수하며 테러리즘을 국가적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국가 테러리즘', 무력에 의한 한반도 공산화 통일에 기본목표를 두는 '정치적 테러리즘', 테러리즘을 정치적 선전 수단이자, 통제 수단, 대외 활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정치적 활용'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북한 테러리즘의 특징을 토대로 국제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군사전략과 날로 증강해가고 있는 북한 군사력,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 테러전 수행능력 등 북한 테러리즘의 위협을 분석, 향후 전망을 도출하였다.

향후 북한의 대남테러리즘의 전략은 강대국들의 직접적 관여를 회피하고 그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대남 군사도발을 이용하여 내부적 단합과 군기 확립을 꾀하고, 외교적으로 협박과 협상을 반복하며 가능한 한 최장기간 체제 유지를 지속하기 위해 끊임없이 방책을 추진할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국제환경변화는 북한이 협상수단으로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지독한 경제 및 식량 난 등 내부 위기극복을 위해 물리적 테러를 감행할 것이며 또한 정보화 시대에 그 위험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사이버 테러리즘'을 이용한 테러리즘과 심리전 등도 향후 북한이 자행 할 수 있는 대남 테러리즘으로 전망할 수 있다.

본 논문이 제시한 북한의 대남테러리즘에 관한 연구는 향후 전망에 유익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날로 발전되는 대남 테러리즘에 관한 대응방안은 이후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밝혀지길 바란다.

【주요어】 북한의 대남테러리즘, 테러리즘, 북한

목 차

【 표 목 차 】

【 그 림 목 차 】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현재 국제사회는 강대국 간의 전면전 가능성은 현저히 감소했지만 자원, 민족, 종교, 영토 등의 분쟁요인들에 의한 테러의 가능성은 점차 증가 하고 있다. 복합적인 분쟁요인이 얽혀 있는 한반도의 경우, 북한이라는 비정상적인 국가체제에 의해 대남테러가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테러리즘은 한국전쟁의 정전 이후,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 공작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제는 민간인 희생도 당연시 하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1)

북한은 지난 반세기동안 끊임없이 감행해온 대남테러를 통해 때때로,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을 증대시켜 왔다. '대결과 협력'이라는 이중성이 공존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북한이 자행한 대남테러행위는 남북관계의 역기능을 초래해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2)

북한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부터 2011년에 이르기까지 정규전력과 비전규전, 전통전력과 재래식 전략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2,660여 회에 달하는 크고 작은 대남테러를 자행해 왔다. 즉 북한은 특수전력을 활용한 무장공비 침투와 테러, 납치와 같은 공격을 비롯해서 해안포병, 함정 및 잠수함을 동원하여 육지와 NLL 및 해상 등지에서 기습적인 테러행위를 자행해왔다. 최근에는 농협전산망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테러까지 서슴치 않으며 시기와 목적에 따라 대남테러 행위를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다.

또한 2012년도에는 우리나라 및 미국의 대선 등 국제환경변화와 핵안보정상회담 등이 예정되어 있어 북한은 이 시기를 기회로 강성대국으로 치닫는 요소를 추가하기 위한 협상의 수단으로 대남 테러를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1) 중앙일보, "북한, 연평도 민가에 포 쏴놓고 '남한이 흉악한 인간방패 썼다", 2010년 11월 29일.
2) 통일교육원(2011), 『북한 이해』, 서울 : 정우디피씨, p113.

이와 같은 배경은 북한의 대남테러리즘이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낳는다. 북한의 대남테러 위협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의 대테러 방안연구와 굳건한 국가안보태세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대남테러리즘의 특징과 위협을 분석하여 북한의 테러리즘을 전망함으로써, 향후 한반도 평화·안보 정착과 대테러리즘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며 그에 따른 견고한 안보 대책은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며, 크게는 국제 평화와 역사적 교훈, 향후 대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남북한 간 냉전시대의 군사적 대결 상태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아직도 대남 적화통일전략을 고수하면서 세계 5위권 이내의 막강한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김정일 체제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핵 및 미사일, 화생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과감한 사이버테러까지 감행하고 있어 한반도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연구한 북한의 대남테러리즘의 위협의 범위에는 북한테러리즘의 특징과 북한의 테러전 수행 능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북한의 대남테러리즘 전망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북한테러리즘 특징분석의 시기적인 기준은 6. 25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범위로 삼았다. 또한 본 논문에서 북한의 대남테러리즘 사례는 명확하게 김정일 또는 북한정권 주도하의 테러리즘으로 밝혀졌거나 공식적인 사건 수사 기관이 제시한 북한과 연계된 사건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분석에 의한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테러에 관련된 각국의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보고서와 정책자료, 그리고 테러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견해와 그동안 발간된 문헌 및 연구 등을 바탕으로 분

석하였으나 연구자의 자료 분석 및 기술능력의 부족 등으로 심층적인 연구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북한의 대남테러리즘에 관한 논문을 주요 자료로 활용하며 언론기관의 기사와 학회의 연구보고서와 같이 공신력 있고 사실적인 자료를 부차적으로 활용했다.

본 논문은 모두 5개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은 서론으로 북한의 대남테러리즘 위협분석의 연구목적, 범위와 방법을 기술하였고. 제2장에서는 테러리즘의 정의를 이해하고 현대 테러리즘의 특성과 북한 테러리즘의 특성을 일반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군사전략 및 지휘조직과 군사력, 사이버전 수행능력 등을 분석하여 북한의 테러전 수행 능력을 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내용을 기초로 국제환경변화와 북한 내부 위기극복 그리고 사이버전의 발달로 인한 북한의 향후 대남테러리즘을 전망하였다. 제 5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내용들을 요약·정리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제 2 장 테러리즘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테러리즘의 정의

테러리즘은 사전적으로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조직적·집단적으로 위협을 가함으로써 공포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일반적으로 테러리즘은 테러(Terror)란 단어에 '~ism '이 합성된 단어이며, 테러란 라틴어 'terror'에서 기원한 것으로 공포, 공포조성, 큰 공포 또는 '죽음의 심리적 상태' 등을 뜻한다. 두려움을 크게 느끼는 것 또는 공포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 그리고 죽음을 야기하는 행위나 속성이 즉 테러인 것이다. 이러한 테러와 테러리즘을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직적인 정치폭력의 일환으로서 테러리즘 행위와 탈선적 행위를 구분하기 위해서 '테러'와 테러리즘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3] 테러는 '주관적 경험'이며 '마음의 상태' 또는 '심리적 효과' 등 가치중립적 뉘앙스가 강하다.[4] 즉, 테러가 행위나 수단적 측면을 강조하는 극도의 불안한 심리적 상태의 자연적 현상임에 반해, 테러리즘은 다소 객관적이며 가치평가를 부정적으로 내린 범죄성의 결과를 강조하는 폭력적의 조직적·의도적·체계적 활용을 함축하고 있다[5]

테러리즘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국제법적인 기준 없이 해방과 억압의 대립적인 문제, 이념 문제, 인권 문제, 도덕성 문제, 사회·심리적 문제, 범죄와 정치 목적의 폭력행위의 구분 문제 등 이념과 입장의 편견적 인식과 시각이 작용하고 어느 정도의 폭력과 위협까지를 테러리즘의 범부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도 내포하고 있는 등, 그 자체의 성격에

---

3) 김응수(2008), "테러리즘의 초국가성 확산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경남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13.
4) 여영무(1989), 『테러리즘과 저항권』, 서울 : 나남, pp. 13~14.
5) 이장희(2001),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과 과제", 『테러리즘에 대한 법적 조명과 그 대응방안』, 서울 :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pp. 2~5.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6] 국제사회의 다양한 정치 환경 속에서 당사자의 입장 차이에 따라 애국투사나 영웅의 숭고한 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혁명지지 세력과 중도적 입장 국가들 간에 테러리즘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일지라도 '한 사람의 테러리스트는 다른 사람에게는 자유의 투사' 가 될 수 있다.[7]

이와 같이 테러리즘을 인식하는 각자의 입장과 시각의 차이로 인하여 정의는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의를 내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이유는 첫째, '테러행위 주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개인이나 비국가 행위자들만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규정되어야한다. 둘째, '테러행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비정규 무정 세력이 군사시설이나 정규군을 공격하는 것이 테러인가 아닌가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이다. 셋째, 테러행위의 동기와 정치범과의 관계 설정이 되어야 한다. 넷째, 민족해방전쟁과 테러리즘의 관계 등 많은 문제들이 국가 간의 이해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하는 개념정립도 이루기가 어려운 실정이다.[8]

미 국방대학원은 테러리즘의 정의와 관련하여 테러리즘은 폭력사용 또는 위협,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계획적 행위, 직접희생보다는 심리적·상징적 영향력 행사의 세 가지 공통 요소를 추출하였다.

테러리즘에 정의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첫째, 행위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단체 즉, 비국가 행위자이며, 둘째, 폭력 또는 폭력사용에 대한 위협을 테러의 본질적 요소로 인식한다는 점, 셋째, 정치 테러리즘의 경우 정치적 목적을 위해 권력 장악 또는 기존권력의 붕괴 또는 저항을 지향한다는 점, 넷째, 테러리즘의 표적은 공중에 대한 심리적·상징적 효과를 노린다는 점, 다섯째, 테러의 주체들은 철학적 근거와 이데올로기성, 조직적 연계성을 지닌다는 점 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테러리즘이란 '비국가 행위자들이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달

---

6) 이태윤(2004), 『21세기 국제 테러리즘』, 서울 : 모시는 사람들, p. 45.
7) U. S. National War College,(1986), 『Terrorism』 (Washington, D. C. : U. S. National War College), p. 94.
8) 송재형(2007), "대량살상무기(WMD) 테러리즘의 확산 가능성과 대응의 한계", 한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9~10.

성하기 위해 특정 표적에 대하여 직접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함으로써 공중에 대한 심리적·상징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폭력 활동이다' 라고 할 수 있다.[9)]

그러나 여기서 테러리즘과 폭력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 테러리즘은 정치적, 종교적, 사상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기지만 폭력은 목적이 없거나 단순한 자신의 감정 표현 등의 행위로 테러리즘과는 구분되는 행위 이다. 가령, 2007년도에 발생했던 모 통신사 앞에서 시위하던 남성이 홧김에 차량으로 정문을 파손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는 정치적, 종교적, 사상적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 한 행위로 테러리즘이 아닌 폭력 행위인 것이다.

제 2 절 현대 테러리즘의 특성과 추세

1. 테러리즘 주체 및 대상의 초국가성

국제 테러리즘은 1960년대 극좌 및 PLO 계열의 테러조직과 같은 현대적 의미의 국제 테러가 등장한 이래 1970년대에는 구주지역과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극좌테러가 주를 이루었으나 냉전 종식과 함께 쇠퇴하였다. 1980년대에는 이념보다는 소수민족 분립이나 종교에 기인한 테러가 빈발하였고, 1990년대 무렵에는 아랍 과격파들의 국제 테러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2000년대에는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10)] 이러한 테러의 변화로 테러 조직의 구조가 변화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전통적 테러 조직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활동하는 단순한 위계적 성격의 조직인 반면, 알카에다와 같은 최근 테러 조직은 네트워크 구조를 지닌 보다 복합적인 조직 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11)] 알카에다는 빈 라

9) 김응수(2008), 전게 논문, p. 16.
10) 김태진(2004), 『테러정책연구논총 '04. 1 : 국제테러조직의 동향과 대응책』, 서울 : 국정원, pp. 95 ~ 96.
11) 김응수(2009), 『국가위기관리 회보 : 탈냉전 이후 초국가적 테러리즘의 확산과 군사적 대응』, 국가위

덴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부호를 이데올로기적·재정적 중핵으로 하여 네트워크 형태로 조직된 테러단체들의 연합이다.[12] 알카에다에 의해 자행된 테러는 사건수와 규모면에서 엄청나며 '새로운 알카에다'라고 불리는 '이슬람 투쟁 전선'이 1998년 결정된 이후에도 상당하다. 특이한 점은 이들의 테러 행위가 치밀한 준비와 예상치 못한 수단, 그리고 한번 사용한 방식은 상당기간 동안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01년 9·11 테러를 비롯하여 2002년 이후 발생한 국제적인 모든 테러 행위들은 알카에다와 연계된 집단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다. 알카에다의 기본 조직은 14개 이슬람 국가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테러 집단들이 상호 협력하면서 구축되었고 1998년 이슬람 투쟁 전선 이라는 조직이 결성되면서 초국적 기업화되어 있으며 세 개의 단위가 비위계적으로 결합한 네트워크적 체제로 특징지어 진다.[13] 이처럼 현대 테러조직은 단순히 한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대대고 있으며 테러조직 또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1년 말 현재 세계에는 총 1,407여 개의 크고 작은 테러조직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들 단체들은 은밀성과 고도의 조직 보안을 유지한 채 세계 도처에서 초국가적 테러 활동을 자행하고 있다.[14]

또한 현대의 테러리즘은 그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불특정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며, 목표를 선정함에 있어 대량살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폭탄과 총 같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던 테러행위조차 무기의 기술적 개선 및 테러 전술의 변화와 함께 그 파괴력도 보다 강해졌기 때문이다.

전통적 테러리즘은 특정 대상의 제거 또는 정적 암살 등 희생자와 비희생자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했던 '선택적 테러(selective terror)'에서 오늘날 일반 대중을 살상하는 '보편적 테러(general terror)'로 점차 바뀌고 있다.[15] 즉 테러 대상을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분 없이 공격하는 양상을 띤다는 것이다. 과거의 테러리즘이 요인 납치 또는 암살을 통해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현대 테러리즘은 가능한 한 많은 인명을 살상

기관리학회, p. 152.

12) 김응수(2008), 전게 논문, p. 90.

13) 구춘권(2007), 『메가 테러리즘과 미국의 세계질서전쟁』, 서울 : 책세상, p. 59.

14) 김태준(2006), 『테러리즘 : 이론과 실제』, 서울 : 봉명, pp. 293~294.

15) Hirschmann Kai (2003), 『Terrorismus』, Hamdrug : Europäische Verlagsanstalt. p. 16.

함으로써 주변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간접적 영향을 미치려 한다.

테러범에게 납치된 여객기가 세계무역센터에 충돌하여 3천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미국의 9·11테러만 보더라도 현대 테러리즘은 한 번에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함으로써 사회 기본질서가 무너지고 공황에 빠지는 등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테러리즘의 압도적 양상은 수 개국에 걸친 테러 세포조직들이 가담하는 초국가적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16]

2. 새로운 형태의 전쟁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기술과 무기체계 발달의 결합은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17] 그러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 수단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미래전은 정치적, 종교적 분쟁 등 광범위한 영역의 테러리즘과 소규모의 국제 분쟁으로 치열하고 발발 가능성 높은 유형인 저강도 분쟁의 시대가 올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 테러리즘은 국제적 성격을 띠게 됨에 따라 이념적, 조직적 연계성을 지니게 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치투쟁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상이 불특정적이고 목표가 무차별적인 테러를 통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정치적 활동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테러리즘 현상은 인간의 자유주의적 제도 및 가치 타도와 도덕 붕괴를 기도하는 근본적인 철학적, 이념적 차원의 현상이므로 또 하나의 전쟁방식이며 국가 간 분쟁의 한 형태로서 정치의 군사화를 의미한다.[18]

오늘날 국제 테러리즘은 국제 분쟁의 전쟁양상과 비교해 볼 때 전쟁의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테러리즘이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음을[19] <그림 2-1>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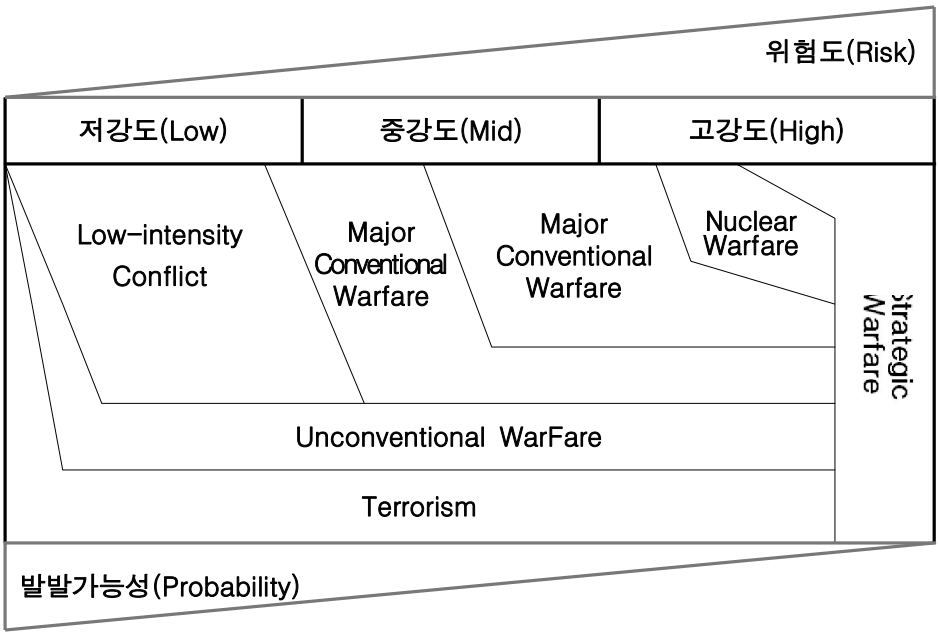
---

16) 김응수(2008), 전게 논문, pp. 106~107.

17) 합동참모본부(1999), "새로운 형태의 전쟁은 완전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걸프전과 코소보 사태에서 이미 그러한 전조는 나타나고 있다", 『코소보전쟁 종합분석 』, 서울 : 합동참모부, p. 43

18) Paul Wilkinson(1986), 『Terrorism and the Liberal State, 2nd Reu. ed』, New York:New York University Press, p. 194.

<그림 2-1> 전쟁양상의 분류



* 출처 : 김응수(2008), 『테러리즘의 초국가성 확산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테러리즘은 저강도 분쟁의 일부이다. 이는 1970년대 재래식 전쟁보다 강도가 약한 정치·군사적 활동의 다양한 범위를 포함한다. 일부학자들은 평화 유지군이나 안보 지원과 같은 간접적이거나 비폭력적 활동도 광의의 저강도 분쟁 개념에 포함시켜 사용하기도 한다.[20]

현대 국제사회에서 분쟁의 형태는 테러리즘과 저강도 분쟁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전 세계 국가 중 45개국 이상이 테러리즘의 도전을 받고 있다. 이는 강대국 간의 직접적 대결은 전면핵전으로 확전 가능성의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에 '낮은 위기 부담으로 높은 이익을 얻는다'는 대안이 곧 테러리즘이라는 소재가 분명치 않은 '안개의 전쟁' 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인 것이다.[21]

19) 김응수(2008), 전게 논문, pp. 71~72.
20) 국방대학교(1992),『저강도 분쟁이론』, 서울 : 국방대학원, p. 12.
21) 김응수(2008), 전게논문, p. 75.

3.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오늘날 테러리즘이 여러 위협 수단 중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이유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이다. 대량살상무기는 치명적인 살상력을 지니고 있다. 핵무기의 경우 폭발시 수반되는 폭풍, 충격파, 열복사선, 전자기파, 방사선 등으로 동일 중량의 재래식 폭탄과 비교할 때 약 100만배 이상 위력이 강하며, 일본의 원전사고에서 보았듯이 방사능 피해를 고려한다면 그 살상력은 극대화 된다. [표 2-1]에서 보듯이 핵무기의 파괴력은 독보적이다. 핵무기 1KT은 TNT 1,000톤과 비등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표 2-1] 일본에 투하된 원폭의 위력

구 분	히로시마(Little Boy)	나가사키(Fat man)
사용 핵물질	고농축 우라늄(64.1Kg)	플루토늄(6.2Kg)
크 기	305Cm × 71Cm(직경)	325Cm × 152Cm(직경)
무 게	4.04t	4.67t
위 력	15KT(약 280m 상공 폭발)	22KT(약 500m 상공 폭발)
투 발 일	1945. 8. 6	1945. 8. 9
인 명 피 해	약 13만 5천명 사망	약 6만 4천명 사망

* 출처 : 국방부(2004),『WMD 문답백과』

통상적으로 알려진 화학무기는 신경마비, 질식, 수포 발진 등으로 인한 사망이나 영구적 상해와 일시적 기능장애 등을 일으키며, 이 또한 적은 양으로도 수십만 명의 인명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독성과 전염성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생물학 무기도 화학무기와 마찬가지로 제조가 용이하고 소량으로도 커다란 효과를 가져온다. 화학·생물학 무기는 육안 구별이 되지 않아 운송이 편리하고 탐지가 어려우며 전문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테러리스트들의 선호도가 높다. 또한 테러리스트들을 색출 할 수 있는 확률도 낮아 사회 전체를 짧은 기간에 극심한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량살상무기는 재래식 무기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획득할 수 있으며, 탄도미사일을 이용하여 전략적 타격목표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대규모 표적과 핵심표적을 타격 할 수 있는 전략무기로서 군사전략적 유용성을 가진다.

냉전시대 양국체제 하에서 이루어졌던 '공포의 균형'은 '소련의 붕괴 이후에는 인류가 공멸할 수 있다'는 핵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는 있었으나 위협이 분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오히려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은 냉전시대보다도 더 증가하게 되었다.[22] 또한 국제 사회에서의 협상력 제고와 주변국과의 주도권 확보, 경쟁에서도 대량살상무기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확산이 가속화 되었다.

4. 사이버 테러리즘의 등장

요즘은 이동하면서도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PC등의 등장으로 언제 어디서든 정보 교환이 가능해짐으로써 효율성 및 편리성은 극대화된 반면, 사이버상의 위협요인은 증대되고 있다.

즉, 물리적인 파괴력이 아닌, 정보에 대한 사이버상의 공격만으로도 국가기능과 사회기능 전반을 마비시키며 나아가 국방기능까지도 마비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 요인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다. 사이버 테러리즘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위협의 치명성을 들 수 있다. 첫째, 인터넷의 세계화로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등 국가의 전 영역과 기능이 전산화되어 그 피해범위가 단시간 내에 전국,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들 수 있다. 둘째, 해킹·바이러스 등을 공격무기로 사용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테러리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23]

1인 1PC의 정보화 시대에 이르러 전쟁의 개념은 물리적인 테러리즘 보다 익명성이 보장되고 낮은 비용으로 공격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치명

22) 송재형(2007), 전게논문, p. 33.
23) 이용석(2003), "韓國의 테러리즘 對應方案에 관한 硏究 : 북한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p. 49.

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이버 테러리즘으로 변모하고 있다.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은 국가 기간 산업통제시스템, 군사관련 통제시스템, 항공기·철도·금융 시스템 등 국가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의 세계를 무차별 적으로 공격한다.[24]

사이버테러의 방법에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logic bomb), 스누핑(snuffing), 스푸핑(spoofing), 칩핑(chipping), 스팸메일(e-mail bomb), 서비스 거부(denial of service) 등이 있으며 익명성 보장으로 범행의 주체를 파악하기 힘들며, 간단한 컴퓨터 조작이나 속임수로 광범위한 피해를 끼친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실시간 전 세계 전파가 가능하며 자동적이고 반복적인 계속성을 가지고 있다.

사이버 테러리즘은 정보망의 특성을 이용하여 쉽게 유포할 수 있으며 아직 법적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범죄 발생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25] 아울러 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해킹 방법을 웹 사이트에서 누구나 쉽게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은 사이버 테러리즘의 확산 요인이 되고 있다.

제 3 절 북한 테러리즘의 특징

북한 테러리즘의 특징은 국가 최고 지도자의 지휘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지원 테러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내부의 불만을 해소하거나 이를 외부로 분산시키면서 남한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테러리즘을 이용했다. 이러한 북한의 직접적인 테러 대상은 남한으로 한정되어 있고, 국제혁명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로 폭력을 수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5개국 60여 개 국제조직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남한의 내부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은 북한이 테러리즘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을 구체적으로

24) 김응수(2009), “탈냉전 이후 초국가적 테러리즘의 확산과 군사적 대응”, 『국가위기관리 회보』, 서울 : 국가위기관리학회, p. 155.
25) 백영철(2001), “사이버 테러에 관한 연구”, 『대테러 연구제 23집』, 서울 : 경찰청, p. 44.

살펴보면, 수도권에 과도한 인구집중현상, 갈수록 악화되는 빈부격차에서 오는 계층 간 갈등,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급증한 실직자, 일부 대학생의 급진좌경화 성향, 해외 반정부인사, 남한 내의 고정 간첩 또는 동조세력 등이라고 할 수 있다.[26]

북한의 테러부대들은 북한군과 로동당에 이원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먼저 북한군에 조직되어 있는 테러부대로는 10만 명이 넘는 특수전 부대를 들 수 있는데,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북한 로동당에 조직된 테러부대는 로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비서국 예하, 총 22개의 전문부서가 있다. 그 중에는 통일전선부, 대외 연락부(일명 사회문화부), 작전부와 대외정보조사부(일명 35호실)가 있다. 이들 부서가 바로 로동당 예하의 테러부대이다. 이들 대남 공작부서는 각자 독립성을 유지한 채 독자적인 대남사업을 수행하고, 주요 공작 사안에 대해서는 각 공작부서에서 특수공작원을 차출하여 특별팀(task force)을 구성, 임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모든 대남공작 업무에 대한 총괄은 김정일이 직접 지휘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예로 1997년 한국으로 망명한 황장엽 전 북한 로동당 비서는 "북한의 테러활동이나 휴전선 부근에서의 도발 등 납치·파괴활동은 김정일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폭로했다.[27]

북한의 테러리즘은 동해의 강릉 및 남해안 등에 잠수함(정) 침투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면 대화, 일면 도발이란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김정일은 김대중 대통령과 역사적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에도 당 간부들에게 평화 제안을 절대 믿지 말라고 역설했으며, 2001년 12월 북한의 공작선으로 추정되는 괴선박이 일본의 해상보안청 소속 함정에 발각되어 추적당하는 과정에서 격침된 적도 있었다. 이처럼 북한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언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이중성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그들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적화통일에 대한 목표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곧 북한의 대남테러리즘과 테러에 대한 위협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28]

---

26) 김태준(2006), 전게서, p. 263.
27) 최진태(2009), 『국가안보와 대테러전략』, 서울: 대영문화사, p. 89.

1. 국가 테러리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백여 개의 단체가 테러리즘을 자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타 테러리스트 단체에 의해 자행되는 테러리즘과 북한이 다른 점은 북한의 경우 각종 국가기관들이 직접 나서서 테러리즘을 전담하고 집행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의 테러리즘은 국가주도의 테러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대남 전술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테러리즘을 감행해 왔으며, 1960년대부터 북한의 대남테러리즘 노선이 본격화되기에 이른다. 북한의 테러리즘은 국가지원 테러리즘으로서,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만큼, 북한 지자도의 특성과 병영국가체제의 특성, 일인 독재체제의 성향과 투철한 사상(주체사상)성 등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즉, 북한 특유의 독재체제하에서 무장된 사상성과 신앙과 같은 맹목적인 사명감, 충성심을 갖추고 있으며, 병영국가체제에서만 볼 수 있는 국가 총력적 테러리즘 양태를 보이는 것이다. 즉, 지구상에 존재하는 테러리즘 국가 중 가장 호전적이고 극단적인 특성들을 모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29]

특히, 북한의 지도자적 특성에서 테러리즘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데, 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74년 후계자로 등장하면서부터 돌발적인 테러리즘을 주도해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실제로 김정일이 권력의 중심부로 등장한 80년대 초에 북한의 정보·보안기구들이 재조직되었고, 그 이후 노동당 산하 4개부서(35호실, 통일전선부, 대외연락부, 작전부)와 인민무력부 정찰국 등이 경쟁적으로 테러리즘 공작을 수행해 왔다.[30]

2. 정치적 테러리즘

테러리즘의 사용을 정당한 정치투쟁수단으로 간주하는 과거소련의 시각이 북한으로 유입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 통치자들의 저서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공산주의

---

28) 김태준(2006), 전게서, p. 262.
29) 이용석(2003), 전게논문, p. 21.
30) 최진태(1995), "북한의 테러리즘에 관한 고찰", 『국방논집 제 29호』,서울 : 산하, p. 216.

목표달성을 위해 테러리즘을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마르크스는 그의 저서 '자본론'에서 폭력은 새로운 사회를 잉태하는 구사회의 산파라고 주장했다. 1848년 마르크스는 정치적 폭력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는 구사회의 피비린내 나는 단말마적인 죽음의 고통과신사회 탄생의 아픔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혁명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31] 이런 폭력혁명 즉 정치적 테러리즘 만능주의가 북한정권 수립과정과 김일성과 김정일로 이어지는 북한 지도층 사고의 바탕을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 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은 3백 3만의 동족을 희생시키고 전국토를 폐허로 만들었던 한국전쟁을 조국해방 전쟁으로 미화하고 있는 것만 봐도 폭력숭상 집단임을 알 수 있다.[32]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98년 개정서문에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을 끝까지 완성해 나아갈 것"이라는 혁명노선을 옹호했다. 제조 혁명적 국가라는 규정 그리고 제7조 7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 계급적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한다." 라는 조항은 북한의 대남 대외정책에서 폭력성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6조 규정인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단결해 그들의 민족 해방투쟁과 혁명투쟁으로 적극지지 성원한다."라는 내용을 다소 완화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헌법 중 김일성 주체사상 계승발전과 혁명국가라는 표현 속에서 대외정책으로 국제테러리즘을 국가정책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33]

북한의 테러리즘은 한국체제를 약화시켜 한반도를 적화 통일시킨다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북한의 기본목표는 공산체제를 유지, 발전시켜 한국을 공산화하는데 두고 있다.

기본목표인 한국의 공산화에 대해 북한은 한 치의 타협도 허용하지 않는다. 표면적으로는 평화협정체결, 남북대화, 합영법, 남북 간의 연방제 제의 등을 계속 주장함으로써 마치 남북 간의 사상적 대립을 초월할 수 있는

---

31) Rays S. Cline & Yonah. Alexander, 『Terrorism : The Soviet Connection』,Crane Russak, p. 9.
32) 김용호(2007), "북한 테러리즘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53.
33) 김용호(2007), 상게논문. p. 53.

것 같은 인상과 선전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무력에 의한 공산화 통일에 있다. 다만 이 최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전술은 변하여도 그 목적을 바꾸겠다'라는 의사를 지난 30여 년간 표명한 적도 없었고, 또한 앞으로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표명하고 있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 또는 '남조선의 해방' 등은 결국 폭력에 의해 한국정권을 쟁취하여 인민정권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남한혁명의 동의어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그들의 의지가 나타난 것이 바로 2000년 6·15남북 정상회담 직후 작성하여 북한군에 하달한 김정일의 '무력통일준비지시'이다. 이 문서에서 김정일은 "나의 통일관은 무력통일, 당이 평화통일 구호를 높이 들수록 계급의 총창을 날카롭게 벼려야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34]

3. 북한테러 행위의 시기별 특성

북한의 대남테러리즘은 1950년에 처음으로 시작되어 10년을 주기로 여러 단계로 변화를 보여 왔는데, 대남 적화통일이라는 그들의 근본 목적은 지금까지도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다. 남한은 일당독재 체제를 유지해온 북한과는 달리 여러 차례 정권교체가 있었으며 북한은 남한의 정권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 왔고, 그들의 테러리즘 전술은 남한의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고 이를 이용해 그들의 최종 목표인 적화통일을 달성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표2-2]에서 보는바와 같이 탈냉전 전·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대남테러를 자행해 왔다. 탈냉전 전·후주요 대남테러사례를 통해 북한테러의 특징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34) 여환명(2003), "북한의 對南테러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 25.

[표2-2] 시기별 북한의 주요 대남테러

구 분	대 남 테 러 사 례	
냉전 시대	• 창랑호 납북 사건(1958. 2. 16) • 해군 당포함 격침(1967. 1. 19) • 연평도 어선포격(1967. 5. 27) • 서부전선 군 트럭 기습(1967. 8. 10) • 경원선 폭파(1967. 9. 5) • 경의선 폭파(1967. 9. 13) • 청와대 기습(1968. 1. 21) • 대한항공 YS-11기납북(1969. 12. 11) • 해군 방송선 피랍(1970. 6. 5) • 현충문 폭파 미수(1970. 6. 22)	• 대한항공 F-27기 납북 미수 (1971. 1. 23) • 해경 863경비함 격침(1974. 6. 28) • 박정희대통령 저격 미수(1974. 8. 15) • 8.18 도끼만행(1976. 8. 18) • SR-71 정찰기 피격(1981. 8. 26) • 캐나다 순방 전두환대통령 암살 미수 (1982. 2. 24.) • 아웅산 묘소 폭탄테러(1983. 10. 9) • 대한항공 858편 폭파(1987. 11. 29)
탈냉전 시대	• 86 우성호 납북(1995. 5. 30) • 중국 연변 안승운 목사 납치 사건 (1995년 7월 9일) • 최덕근 주러 한국 총영사 피살사건 (1996년 10월 1일) • 탈북자 이한영 피살 사건 (1997년 2월 15일)	• 김동식 목사 납치 사건 (2000년 1월 16일) • 천안함 폭침사건(2010. 3. 26) • 연평도 해안 포격 (2010. 11. 23) • 농협전상망 해킹(2011. 4. 12)

1) 냉전시대 북한의 대남테러

1950년대는 한국전쟁으로 철저히 파괴된 북한 내부의 재건과 체제정비로 인해 두드러진 테러리즘은 없었지만, 1958년 한국의 민항기를 납치함으로써 북한의 대남테러리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두드러진 특징은 북한이 전면적인 재래식 전쟁에서 정치적 폭력 즉 테러리즘 정책을 구체화시킨 시기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는 한국전에서 미국의 군사력을 실감한바 있는 북한이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남한을 전면전 형태로 공격하는 것은 자멸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이라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1960년대는 일련의 항공기 납치와 어선 납치 등 대남테러리즘이 본격화된 시기였다. 이 시기에 있었던 가장 심각한 테러리즘은 1968년의 김신조 사건으로 잘 알려진 청와대 기습공격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목적은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점진적으로 성공을 거두어 남한의 안정이 이루어지자 박대통령을 살해하여 남한사회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일으키기 위함이었다. 청와대 기습사건으로 드러난 북한의 의도는 197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경제개발 계획의 성공으로 남한은 "한강의 기적"으

로 묘사될 만큼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북한을 앞서기 시작했다. 북한은 이러한 성장의 배경을 박 대통령의 지도체제에 있다고 분석하고, 씻지 못할 테러를 자행했다. 박대통령을 암살하려 했으나 실패한 문세광 사건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남과 북으로 나누게 한 도끼만행사건은 남북한 분단 하의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 이르러 북한의 대남테러리즘은 더욱 거세어지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1981년 전두환 대통령을 캐나다 방문시 암살하려 했으나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고, 1983년 버마를 방문 중이던 대통령을 살해할 목적으로 랑군 폭파사건을 일으켰지만 또 다시 미수에 그쳤다. 1980년대에 이르러 남한은 괄목할만한 경제성장과 외교정책의 성공으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어 정치·경제·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북한에 대해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대남테러리즘의 목표를 아시안 게임과 서울 올림픽 개최를 방해하는데 두고 일련의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다. 김포공항 폭파사건과 대한항공 858기 사건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이 시기의 주요 대남테러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부산-서울행 여객기(청랑호) 납북

1958년 2월 16일 오전 11시 30분 부산수영비행장을 이륙한 대한민항공사(KNA) DC3형 경여객기가 여의도 공항에 도착할 무렵 승객을 가장한 납치범들에 의해 납북됐다. 여자 2명을 포함 총 6명인 납치범들은 KNA기를 평양 순안비행장에 강제 착륙시켰다. 납치범들은 비행기가 경기도 평택상공에 이르렀을 때 탑승객 중 군인 2명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쳐 실신시킨 다음 칼빈총과 엽총을 기내 앞뒤에서 발사하면서 조종사를 협박, 기수를 평양으로 돌리게 했다. 범인들은 간첩 기덕영의 조종을 받은 황해도 사리원출신 김택선·길선 형제와 반공청년이던 김순기·최관호와 김형 등 5명이었으며, 월북동행자로 김애희·김미숙이 있었다. 북한은 승무원 4명과 승객 28명, 납치범 6명 등 모두 38명 중 탑승자 26명만을 3월 6일 판문점을 거쳐 송

환했고 기체는 억류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은 북한으로 귀순했다고 주장했다. 피랍기의 조종사는 미국인 윌리스 P홉스, 부조종사는 미공군의 맥클레렌 중령이었다. 피랍 후 송환된 탑승자 가운데에는 국회의원 유봉순과 공군 정훈감 김기완 공군대령도 포함돼 있었다.

북한은 한국 측 입장을 지지하는 국제여론에 밀려 같은 해 3월 6일 납북승객을 송환한다고 발표하였고, 같은 날 〈군사정전위원회 연락장교회의〉에서 인수절차가 논의되었다. 7명의 월북자를 제외한 승객들은 이 날 오후 7시 정전위원회 회담장 앞뜰을 지나 귀환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비행기납치사건으로 기록된 이 사건은 다른 납북사건과 마찬가지로 범행 당사자가 모두 월북해버린 탓에 구체적·실제적인 사건 전말보다는 단지 정황과 방증조사(傍證調査)에 의거한 추측성 수사결과만이 제시되었다.

(2) 청와대 습격사건

1968년 1월 21일 밤 10시경 북한군 제124군부대 소속 무장공비 31명이 휴전선을 넘어 침투하여 대통령관저인 청와대를 습격하려다 비상근무 중이던 경찰 검문에 걸려 기관단총을 난사하고 4대의 시내버스에 수류탄을 던져 승객들을 살상하는 만행을 자행했다. 대간첩작전을 지휘하던 서울 종로경찰서장 최규식 총경을 비롯하여 7명의 군경과 민간인이 이날 북한 무장공비에 의해 살해되었다. 군경 수색대는 2월 3일까지 31명의 공비 중 1명을 생포하고, 도주한 2명을 제외한 28명을 사살하였다. 생포된 김신조에 따르면 이들은 대통령관저 폭파와 요인 암살, 주한 미 대사관 폭파와 대사관원 살해, 육군본부 폭파와 고급지휘관 살해, 서울교도소 폭파, 서빙고 간첩수용소 폭파 후 북한간첩 대동월북 등의 목적을 띠고 있었다.

우리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국방력 강화와 250만명의 향토예비군 창설, 방위산업공장의 설립을 서둘러 추진하였고, 북한의 남파 게릴라 침투에 대비하여 군내에 공비전담 특수부대를 편성했고 전방에는 155마일 휴전선에 철책을 구축하였다.[35]

35) 국방부(2008), 『정신교육 기본교재』, 서울 : 국방부, p.196.

(3) 박정희대통령 저격미수 사건

서울에 지하철 1호선이 처음으로 개통된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 기념식행사에서 박정희대통령은 중요한 연설문을 읽고 있었다.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공산권에 대한 문호 개방과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제의한 1973년의 6.23 선언이었다. 이어진 연설은 북한에 불가침조약을 제의하는 내용이었다. 그때 장내 맨 뒷줄에 앉아있던 20대 남자 한 명이 들고 있던 권총을 자기 허벅지에 오발한 후 대통령의 연설이 계속되는 동안 자리를 박차고 통로로 나와 연단을 향해 뛰어들며 두 번째 총탄을 발사하였다. 총탄은 대통령 앞의 연대를 맞췄다. 대통령은 연대 뒤로 몸을 숙였고, 세 번째 총성 직후 연단 오른쪽에 앉아 있던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가 총탄에 맞았다. 범인은 한 청중이 내민 발에 넘어져 제압당했고 육 여사는 그날 저녁 7시쯤 운명했다. 범인으로 붙잡힌 재일교포 문세광(文世光)은 조총련을 통해 북한과 접촉, 박정희 암살의 지령을 받았으며 일본인의 여권을 위조해 입국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넉 달 뒤 사형에 처해졌다.

(4)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1976년 8월 18일 오전 10시 45분경 UN군 장교 2명과 사병 4명, 대한민국 국군 장교 1명과 사병 4명 등 1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36] 남쪽 UN군 측 제3초소 부근에서 시야를 가리는 미루나무의 가지를 치고 있을 때 북한군 30여명이 접근하여 가지를 치지 말라며 시비를 걸었다. 그들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임을 설명하던 미군장교의 뺨을 때리면서 더 이상 자르면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이에 미군장교가 항의하자 북한군 초소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30여명의 증원부대와 함께 가지고 온 몽둥이와 UN군 측 노무자들이 나무 밑에 두었던 도끼 등을 빼앗아 휘두르며 기습 공격하였다. 이들은 UN군 측 지휘관과 장병들에게 집중 공격을 가해 미군 장교 2명(아서 보니파스 미군 대위와 마크

36) 판문점에 있는 다리로 군사 경계선이 지나는 공동경비 구역의 서쪽을 흐르는 사천에 놓여 있으며 민족 분단의 비극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이 다리는 원래 널문다리라고 하였는데, 1953년 7월 휴전협정 조인 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포로 교환을 비롯하여 남북적십자회담 대표들의 왕래 등 많은 사건들이 이 다리를 통해 이루어졌던 곳으로 한번 가면 돌아오지 못한다고 하여 돌아오지 않는 다리라고 불린다.

발레트 미군 중위)이 피살되었으며, 한·미 9명이 중 ·경상을 입었고, UN군 측 트럭 3대와 초소를 모두 파괴하였다.

사건 발생 후 주한미군과 한국군은 '데프콘 3'(경계상태 돌입)을 발령하고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미군은 F-4 전폭기 1개 대대와 F-111 전폭기 1개 대대를 한국에 증파하고, 항공모함 미드웨이호를 한국해역으로 항진시켰으며, B-52 폭격기를 출동시키는 등 강경한 대응을 취했으며 8월 21일 UN군은 '데프콘 2(전쟁돌입상태)'를 발령한 가운데 문제의 미루나무 절단 작업에 나섰다. 포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 양국 간 협의결정으로 실시된 이 작전에는 건십헬리콥터 26대, B-52 중폭격기 3대, F-4 및 F-111 폭격기 수십 대가 판문점 상공을 엄호하는 가운데 3백여 명의 한미 양군 기동타격대가 투입되었다. 기세에 놀란 북한군이 이에 대응하지 않고 물러서서 더 이상의 무력사태로까지 확대되진 않고 북한의 김일성이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사과문을 국제연합군 측에 전달함으로써 사건은 되었다.[37]

(5) 캐나다 순방 전두환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친북 캐나다 교포 제임스 최(본명 : 최중화)가 1881년 7월 북한의 사주를 받아 1882년 8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아프리카 4개국 및 캐나다 등 해외순방 계획에 맞춰 캐나다인 2명에게 60만 달러의 공작금을 주고 암살계획을 준비하던 중, 그 해 2월 24일 캐나다 검찰에 의해 연루자가 체포됨으로써 한국 국가원수 암살계획이 미수로 끝난 사건이다.[38]

암살 계획에 가담했던 캐나다인 찰스 야노버(Charles Yanover)와 알렉산더 제롤(Alexander Gerol)은 체포된 후 혐의가 인정되어 야노바는 2년, 제롤은 6개월간 감옥에서 복역했으며, 주모자 최중화는 북한으로 탈출 후 수사망을 피해 세계 각지를 떠돌다가 '91년 체포되었다. 최중화는 캐나다 토론토 있는 온타리오 州 (Canada Toronto Ontario) 지방법원에서 1991년 3월 13일 당시 범죄사건을 그대로 인정하고 암살음모죄가 적용되어 6년의 징역형을 받았다.[39]

---

37) 국방부(2008), 전게서, p.197.
38) 경향신문, "全前 대통령 暗殺공작 崔重華 加법원, 살인음모罪로 6年刑", 1991년 3월 14일. 참고.
39) 김태준(2006), 전게서, p. 268.

(4) 버마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

1983년 10월 9일 버마(Burma)를 친선방문중인 전두환 대통령 및 수행원들의 아웅산 국립묘지(Aung San Martyrs' Mausoleum) 묘소 참배 계획을 이용하여 북한 무장공작원이 동 묘소 천정에 설치한 원격조종폭탄을 폭발시켜 대통령의 도착을 기다리며 대기 중이던 서석준 부총리, 함병춘 비서실장, 이범석 외무부장관, 김동휘 상공부장관, 서상철 동자부장관 등 수행원 17명을 사망하게 하고 14명을 부상시키는 등 버마 측 인사까지 총 21명 사망, 46명을 부상시킨 테러사건이다. 사건 발생 후 10일 ~ 12일 사이에 버마당국은 도주하는 북한 공작원 중 2명을 생포하고 1명을 사살하였다. 수사결과 폭파범 3명은 모두 북한의 현역군인으로 밝혀졌으며, 검거과정에 사살된 신기철(대위, 조원) 외에 진모(소령, 조장)와 강민철(대위, 조원)은83년 12월 9일 랑군(Rangoon : 現 Yangon) 지구 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버마 최고재판소에서도 원심이 확정되어 진모는 사형되었고, 범행을 시인한 강민철은 순순히 수사에 협조한 점을 참작하여 무기 징역이 선고되어 복역 중 2008년 옥중 사망하였다.[40]

(6) 김포공항 폭파사건

서울 아시안게임 개막 1주일 전인 1986년 9월 14일, 김포공항 게이트에서 폭발물이 터져 5명이 사망하고 29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폭발은 김포공항 국제선 5번 게이트와 6번 게이트 사이의 쓰레기통이었다. 사건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건전지 2개와 전깃줄, 철제신관, 테이프 등 파편 30여점을 수거했으며 범인들이 5번 게이트와 6번 게이트의 인도와 횡단보도 쪼긍로 파편이 비산하도록 폭파각도를 지정한 것으로 추정했다. 즉 사방으로 파편이 마구 튀는 것이 아니라 일정각도로 파편이 집중되도록 정밀하게 조정을 했다는 것이다. 목격자들은 잿빛 연기가 났다고 증언했으며 이를 토대로 수사당국은 사용된 폭약이 콤포지션-4 폭약일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국내에선 민간용으로는 이 폭약을 쓰지 않았다. 아웅산 테러 당시 북한이 콤포지션-4를 사용했기 때문에 당국은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 지었으나 당시 콤

40)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1996), 『북한의 납치·테러범죄 전모』, 서울 :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pp. 57~60.

포 지션-4는 북한 외에 이슬람 테러조직도 즐겨 쓰던 폭약이었다.

경찰은 범인들이 버스를 타고 김포공항에 들어와 1~2시경 쓰레기통에 시한폭탄을 버렸을 것으로 보았다. 당시 김포공항에 들어오는 소형차들은 검문을 하고 있었으나 버스는 검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범죄 용의점이 있는 내·외국인의 출국을 막고 일본인 24명을 연행 / 조사했으나 아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아울러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유류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으나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 또한 천만원의 포상금을 걸고 인터폴 회원국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끝내 미제 사건으로 종결되었다.[41]

현재까지도 김포공항 테러는 사건의 범인과 그 배후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스위스의 한 신문사를 통해 확인된 보고서에 의하면 김포공항 폭탄테러가 북한의 청부를 받은 국제적인 테러조직 아부 니달(ANO ; Abu Nidal Organization)의 소행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위스 베른신문사의 무라타 노부히코(村田信彦) 기자는 김포공항 폭파사건을 조사한 보고서를 베를린의 '구(舊) 동독 정보기관 슈타지(STASI) 자료 관리 연방정부 특명센터'에서 찾아냈다. 이 보고서는 김포공항 테러 직후, 독일의 프란츠(Franz)대령이 지휘하는 슈타지의 한 부서(22국)가 김포공항 폭파사건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보고서 안에는 22국의 한 간부가 국제적으로 악명 높은 테러리스트 아부 니달을 신문한 기록도 있는데, 아부 니달은 신문과정에서 북한의 청부를 받고 조직원을 시켜 김포공항을 테러했다고 자백했다. 슈타지의 조사에 따르면 아부 니달이 이끄는 테러조직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김포공항 청부를 받은 것은 1985년 말이었다. 아부 니달은 조직 내 서열 2위이자 테러 담당이던 술레이만 삼린(Samrin Suleiman)에게 실행을 지시했다. 술레이만 삼린은 테러용 폭탄을 잘 만드는 아부 이브라힘(Abu Ibrahim)에게 폭탄제조를 지시했고, 이브라힘은 동거 중이던 서독 적군파 요원 프레데리케 크라베(Frederike Krabbe)에게 폭탄운반 임무를 맡겼다. 크라베는 영국인으로 위장해 김포공항에 입국했

41) 북한의 도발 「김포공항 폭파사건」, http://ktx111.blog.me/125212058

고, 폭탄을 5·6번 게이트 사이 쓰레기통에 놓고 홍콩으로 출국했다. 김포공항 폭파사건이 성공한 후 북한 정권은 스위스에서 오스트리아 빈(Austria Wien)에 있는 한 은행의 아부 니달 비밀계좌로 500만달러를 송금했다.[42]

(7) 대한항공 KAL 858기 공중폭파 사건

1987년 11월 29일 14시 5분경 버마 안다만 해역(Burma Andaman Sea) 상공에서 이라크 바그다드(Baghdad) 發 서울행 대한항공 KAL 858기가 공중 폭발하여 승객 및 승무원 115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일 14시 1분경 대한항공 858기가 버마 랑군 지상관제소와 최종 교신 후 실종되자, 관계당국은 제반정황을 파악, 동 비행기가 테러에 의해 공중 폭파되었을 가능성이 짙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버마와 태국 등 관계 국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색작업을 벌인 결과 1987년 12월 3일 안다만 해상에서 항공기 잔해를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수사당국은 즉시 탑승자 조사를 하였고, 특히 중간 기착지인 아랍 에미레이트 아부다비공항(Abu Dhabi International Airport)에서 내린 15명의 외국인 탑승자를 집중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일본인 여행객으로 위장한 "하찌야 신이찌(본명 김승일)"와 "하찌야 마유미(본명 김현희)"를 유력한 용의자로 추적하였고, 이들이 소지한 일본여권이 위조여권임을 확인하였다. 당시 레바논에서 출국을 기도하던 이들은 공항에서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극약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결국 김승일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김현희는 자살 미수에 그쳐 한국으로 인도되었다. 같은 해 12월 15일 한국에 인도된 김현희는 대한항공 KAL 858기 폭파에 관련된 북한의 음모를 모두 자백함으로써 동 사건이 김정일의 직접지시로 인한 치밀한 계획 테러리즘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43] 조사결과 북한에서 고도의 테러훈련을 받은 김승일과 김현희는 시한폭탄과 액체폭발물을 각각 라디오와 술로 가장하여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니고 항공기에 탑승하였다. 그들은 폭파시한을 9시간 뒤로 조작한

---

42) 무라타 노부히코(2009), "1986년 김포공항 테러는 북한 청부받은 아부 니달 조직 소행", 『월간조선 3월호』, 서울 : 조선일보

43) 동아일보, "김현희에 대한 검찰공소장", 1988년 2월 4일, 참고.

폭발물을 항공기 좌석 선반위에 놓은 채 중간 기착지인 아부다비 공항에 내렸고, 대한항공 858기는 계획된 폭파시한에 따라 29일 14시 5분경 버마 근해인 안다만 해역에서 공중 폭파함으로서 대부분 중동건설현장 근로자들이던 승객93명과 외국인 2명, 승무원 20명 등 무고한 탑승객 115명 전원이 사망하였다.

앞에 제시한 사례들로 탈냉전 이전 북한의 대남 테러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휴전 이후 북한은 경제 우선 정책으로 파탄된 경제를 복구하고, 공업능력을 향상시켜 군사적 공세를 준비하는 잠재능력 형성기로 설정하여 정책노선을 변경 추진하였다. 따라서 대남전략의 기본 방향으로서 '반제·반봉건 민주주의 혁명노선'을 채택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독자적 전략으로 추진한 핵심 내용은 휴전기간 동안 인민을 총동원하여 혁명기지 건설에 매진하고 적군을 와해시킨다는 것이었다. 이는 1964년 이론화된 3대 혁명역량의 관점에서 보면 '북조선 혁명역량' 강화를 추진한 시기라 하겠다. 1960년대 초 4·19혁명과 5·16군사혁명 등 매우 불안정한 남한 정세가 지속되자 김일성은 남한에서 혁명정당을 조직하여 그 주도하에 조직적인 방법으로 반제국주의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1961년 남한에 군사정권이이 들어서자 군사공격 시도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군사체계를 정비하면서 '남조선혁명' 전략을 수립하고 4대 군사노선과 6대 주체전법[44]을 확립시켰다. 남조선 혁명역량은 남한에서 북한이 의도하는 반미·반정부·용공의 성격을 띤 혁명을 자극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까지 지속 추구하고 있다.[45]

이러한 전략에 따라 이 시기에 잔혹하고 대담한 테러리즘 사건들이 유례없이 대규모로 발생했다. 사회 질서가 혼란한 시기에 테러리즘의 극적인 증가 현상은 결코 우연으로 보기 힘들다. 그것은 특별한 상황에 따른 일련의 전쟁도발을 유인하기 위한 술책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은 동서긴장완화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남조선 혁명투쟁을 지속하는 화·전양면 전략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북한은 1971년 4월 미군철수 및 감군·연

44) 6대 주체전법은 배합전, 산악전, 야간전, 갱도전, 기동전, 기습전이다. 북한군은 오늘날까지 전략 상황에 따라 6대 주체전법을 변화시켜 적용해 오고 있다.
45) 김응수(2011), 『21세기 북한의 이해』, 성남 : 북코리아, pp. 143~144

방제실시·정치협상회의 개최 등 8개항의 대남평화 제안을 내놓았다. 남북적십자 회담과 정치적 대화를 위한 비밀접촉에 응해오는 등 분단 4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남한과의 공식적인 대화를 시작하였다. 아울러 1973년 6월 고려연방공화국 창설을 포함한 평화통일 5대강령을 발표하고 대민족회의 소집을 제의하는 등 다양한 평화공세를 전개하였다. 이 시기는 1972년 7월 4일 조국통일 3대원칙을 포함한 남북공동성명이 채택 / 발표되었다.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진행되는 등 남북관계가 대화 없는 대결의 시대에서 대화 있는 대결의 시대로 전환되는 시기였다. 그러나 닉슨독트린에 따라 미군이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부터 철수하기 시작하고 월남이 패망하는 등 국제혁명역량이 강화되자 북한은 다시 대남강경노선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1973년 8월 김대중 납치사건을 빌미로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킨데 이어 1975년 4월 북경 방문시 김일성발언을 통해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60년대와 같은 극단적인 테러는 없었으나 소규모의 꾸준한 시도는 변함없이 자행되었다. 이 기간에 관찰되는 테러리즘의 현격한 변화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분석될 수 있다.

북한 테러리즘이 변화한 주요요인은 미국이 월남전을 종식시킨 사실에 있다. 김일성이 판단한대로 미국이 월남전을 수행하는 동안은 한반도에서 힘이 분산되어 실질적으로 한국과 월남에서 양면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논리가 더 이상 효과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해 미국이 한국방위에 전력을 투입 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었다는 논리가 북한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으로 인식된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월남전 종식 후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에 도전하는 테러행위가 한 건도 없었고 한국 내에서도 1960년대와 같은 호전적인 도발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사실로 입증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사건들은 북한이 테러리즘을 그들의 목적달성을 위한 대외정책으로 지속적, 고수·발전시켜 왔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한·미 연합군의 철저한 경계태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군사 분계선을 통한 게릴라식 침투공격이나 반공의식이 투철한 남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장

공비를 침투시켜 혼란을 조성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북한은 정치·경제·군사적 위험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테러리즘을 채택하게 되었다. 테러리즘 정책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많은 테러리즘 사건에서 증명되었듯이 배후조종 세력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대한항공 858기의 폭파범 김현희가 탈출에 성공했거나 자살에 성공했더라면 북한의 의도 대로 이 사건은 심증은 있으나 완벽한 물적 증거가 없는 사건으로 처리됐을 수도 있었다. 설령 북한의 대남테러리즘 배후가 완벽하게 드러난다 하더라도 북한은 남한정부에 의한 조작사건으로 몰아붙여 위기를 모면하고자 했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전술은 랑군사건과 대한항공 858기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또한, 지난 1994년 3월 김영삼 대통령의 중국 방문시 북한 공작원의 암살기도가 있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북한은 남한 측에 의해 날조된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우리에게는 테러와 암살 같은 것은 있어 본적도 없다'고 강변하면서 그들의 테러리즘 정책을 부인하고 나섰다.

또한 대남테러리즘을 지속적으로 자행함으로써 남한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위험한 곳으로 국제사회에 각인시켜 경제·금융·무역 등 여러 분야에서 경제적 치명타를 입힐 수 있고, 아울러 올림픽과 같은 인류 대제전 행사를 방해하여 남한의 국제적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858기 사건은 북한의 이러한 의도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었다. 마지막으로 대남테러리즘을 통해 남한사회를 불안과 혼동 속에 빠지게 하고 이틈을 이용해 테러리스트나 불순 좌경세력들이 일각의 노동자들과 운동권 학생들을 조종하여 폭력과 혼돈의 사회 상황을 조장고 대남 적화통일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2) 탈 냉전 시대 북한의 대남테러

1990년대에는 김일성의 후계자인 김정일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대남 도발이 이어졌다. 1996년 강릉시 강동면 동해고속도로를 지나가던 한 택시기사가 바다에서 수상한 물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북한 무장공작원 26명이 타고 있던 22전대 소속 상어급 잠수함이었다. 당시 이들은 남

한 침투 후 모든 방첩 활동을 마친 후 북한으로 복귀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잠수함이 어망에 걸리며 좌초했다. 우리 군은 연인원 150만명을 동원한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펼쳤다. 무장공작원 26명 중 11명은 자살했고 13명은 사살 당했다. 이 과정에서 1명은 도주, 1명은 생포했다. 이 외에도 1999년 6월 북한 경비정의 NLL 접근 및 함포 사격, 20 차례가 넘는 군사분계선 월선 공격이 단행됐다. 2000년대에는 북한의 대남 테러 수위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2000년 1월 16일 선교활동중인 김동식 목사 납치 사건부터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되는 2010년 3월의 천안함 폭침 사건, 이 후 11월에는 북한이 서해 연평도를 향해 무차별 포사격을 가해 우리 군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하는 등 전쟁 수준의 강도 높은 테러를 감행했다. 또한 테러의 수단도 물리적 파괴 외에 사이버 테러도 진화하는 시기이다. 이시기의 주요 대남 테러사례는 다음과 같다.

(1) 86 우성호 납북 사건

1995년 5월 27일 '85 우성호' 및 '86 우성호'가 서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주선인 '85 우성호'가 중국 어로통제선에 나포되자 '86 우성호'만 단선 인천항으로 귀환 중 백령도 북방해역에서 북한 경비정으로부터 총격을 받았다. 선원 총 8명 중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파편에 의한 중상을 입은 채 피랍되었으며, 피랍된 선원 6명 중 1명은 병사하고, 5명은 7개월 간 북한의 체제선전 등에 이용당한 후 같은 해 12월 26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사건이다.[46]

(2) 중국 연변 안승운 목사 납치 사건

중국 연변에서 선교활동 중이던 순복음교회 소속 안승운 목사가 95년 7월 9일 연길(延吉 : Yanji)시내에서 북한 측에 납치된 사건으로, 납북 사실은 북한 중앙통신이 24일 "기독교 목사인 안승운씨가 모종의 임무를 띠고 중국연변지역에 파견돼 활동하던 중 망명했다."고 보도함으로써 확인됐다. 안 목사는 9일 연길에서 이사할 아파트를 돌아보던 중 괴한 3명에 의해

46) 조선일보, "항해각도 무선교신 착오 항로이탈... 우성호 수사발표", 1996년 12월 30일. 참고.

강제로 택시에 태워져 실종됐으며, 북한은 그해 8월 안 목사를 TV에 출연시켜 '의거입북'을 주장하게 하였다. 안승운 목사 납북 약 15년 후인 올해 3월, 한국기독교 연합회 및 탈북자 가족모임에 비공식적 채널로부터 안승운 목사의 자살 소식이 전해졌고, 국가정보원이 자살 및 사망한 사실을 최종 확인하였다.[47]

(3) 최덕근 주러 한국 총영사 피살사건[48]

93년 2월부터 우크라이나 대사관 참사관으로 근무한 뒤 95년 12월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영사로 재직해오던 최덕근 주블라디보스토크 영사가 1996년 10월 1일 밤 블라디보스토크 숙소인 아파트계단에서 정체불명의 괴한으로부터 피습당해 현장에서 피살됐다. 최영사의 피살은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이후 軍당국에 의한 공비소탕작전이 막바지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북한 측이 '백배 천배 보복하겠다'고 호언한데 이어 발생해 내외에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다.

최영사는 이날저녁 공관원들과 저녁을 먹은 후 헤어져 저녁 8시 30분에서 9시께(현지시간) 총영사관에서 15-20분 거리인 숙소아파트 7층(루스카이 55-A KB205호)으로 귀가도중 3층 계단에서 정체불명의 괴한들로부터 피습을 받아 살해되었다. 외무부 서대원 대변인은"최영사의 지갑, 현금, 여권 등 소지품은 그대로 남아있었다"고 밝혔다. 우리 외교관이 과거 총격을 받은 적은 있으나 해외근무 중 피살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외무부는 현지공관에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보고토록 긴급 지시하는 한편 러시아 관계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통한 범인검거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러시아경찰은 사고 직후 즉각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서대변인이 전했다. 외무부는 또 최영사의 피살이 북한 측에 의한 계획된 보복일 가능성에 대비, 치안 등 경계가 취약한 해외공관에 대남테러공격 및 보복행위에 대한 경계경호를 강화토록 긴급 훈령했다.

---

47) 조선일보, "안승운 목사 납치일지", 1997년 7월 27일, ; 조선일보, "1995년 납북 안승운 목사, 北서 자살 확인", 2010년 3월 15일. 참고.

48) (c)연합뉴스. 1996. 10. 02. 참고

(4) 탈북자 이한영 피살 사건

김정일의 첫 부인 성혜림의 조카로 82년 귀순한 이한영이 15일 오후 9시 52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자택에서 괴한 2명의 총격을 받고 중태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한 사건이다. 15일 오후 외출했다가 최근 들어 자신이 묵고 있는 선배 김장현의 집에 돌아가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는 순간,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40대 남자 2명이 쏜 권총 실탄에 이마와 가슴을 저격당했다. 사고 직후 이한영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총알 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머리에 박힌 총탄제거에는 실패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49]

(5) 김동식 목사 납치 사건

미국 영주권자인 김동식 목사가 지난 1995년부터 在中 탈북자를 지원하며 선교활동을 하던 중 지난 2000년 1월 중국 연길(延吉 ; yanji)에서 실종된 후, 2004년 12월 김동식 목사 납북에 가담한 북한 국가보위부 소속 조선족 공작원 류영화가 국정원 및 검찰에 검거되어 자백하면서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된 사건이다.[50]

중국 연길의 한 식당에서 7~9명의 북한 공작원들에게 납치·북송된 김동식 목사는 피랍탈북인권연대에 의해 2001년 2월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북한의 조사과정에서 전향 및 협조를 거부하다 각종 고문 및 폐쇄공포증, 영양실조 등으로 완전 탈진한 상태에서 직장암 등이 악화돼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51]

(6) 천안함 폭침사건

2010년 3월 26일에 21시 22분경 아 서북해역 영해 상에서 경계작전 중이던 천안함이 북한군 잠수함정의 어뢰공격을 받아 침몰하였으며,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고 함정은 완파되었다. 이는 우리 해군에 대한 무

---

49) 조선일보, "귀순 이한영씨 총맞아 위독 황장엽 귀순 보복테러 추정", 1997년 2월 16일, ; 조선일보, "이한영 북한소행 확실", 1997년 2월 17일. 참고.

50) 도희윤(2005), "김동식 목사와 진경숙 씨를 송환하라", 『시대정신 통권 28호』, 서울 : 시대정신

51) 조선일보, "납북 金목사 2001년 2월 사망", 2005년 1월 6일. 참고.

력공격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도발로서,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이다.
침몰해역에서 수거된 어뢰추진 동력장치 분석결과와 선체변형 형태, 관련자 진술내용 분석, 부상자 상태 및 사체 검안결과, 수중폭발 시뮬레이션 결과, 백령도 근해 조류분석 등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 및 버블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되었고, 폭발위치는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 정도이며, 무기체계는 고성능폭약 250kg 규모의 북한에 제조하여 사용 중인 어뢰로 확인되었다.

(7) 연평도 포격사건

2010년 11월 23일 오전에 북한은 대한민국 국군과 주한 미군의 육해공 연합 훈련에 대해 자국에 공격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중단을 요청하는 전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연례적인 훈련일 뿐이라며 요청을 거절하고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하였다.

같은 날 오후 2시 34분 경, 훈련 종료 후 한 시간 즈음되어 북한은 76.2mm 평사포, 122mm 대구경 포, 130mm 대구경 포 등을 이용해 연평도 군부대 및 인근 민가를 향해 개머리 해안부근 해안포기지로부터 포격을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군은 첫 타격 13분 후 K9 자주포를 무도 포진지에 50발, 개머리 포진지에 30발 총 80여발을 발사하였다. 북한의 공격은 오후 3시 41분까지 계속되었으며 170여발이 발사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한민국군은 북한의 공격이 있은지 4분 뒤인 오후 2시 38분 KF-16 2대를 긴급 출격시키고, 이후 추가로 KF-16 2대와 F-15K 4대를 출격시켰다. 그러나 이후 도발이 계속되지 않아 실질적인 타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백령도 부근 북한군 해안포 기지에서의 해안포 입구 개방이 확인되기도 하였으나, 공격은 계속되지 않았다.

(8) 농협 전산망 사이버테러

2011년 4월 12일 농협 전산망에 있는 자료가 대규모로 손상되어 수일

에 걸쳐 전체 또는 일부 서비스 이용이 마비된 사건이다. 사건 초기에는 협력 업체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농협 측에서는 내부 전문가의 사이버 테러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으나 이번에도 역시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들어났다. 지난달 12일 발생한 전대미문의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3일 검찰은 그동안의 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사건 수사를 담당해온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이번 사태가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테러인 사실을 확인하였다"며 "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를 암호화하는 기법 등 공격에 사용된 81개 악성코드를 만든 독특한 제작기법이 2009년 7·7DDos, 2011년 3·4DDos 사건과 대단히 유사하고, 웹하드 사이트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등 좀비를 만들기 위해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설치하는 방식도 위 DDos 사건과 거의 같을 뿐만 아니라, 좀비를 조종하기 위해 해외에 마련한 공격명령 서버(C&C 서버) IP 1개마저 3·4 DDos 사건에 이용된 것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7·7, 3·4 DDos 공격을 한 집단과 동일집단이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하여 실행한 것으로서 북한이 관여된 초유의 사이버테러다"라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공격명령 발원지는 유지보수업체 직원의 노트북이었고, 이 노트북은 2010년 9월 4일경 좀비PC가 되었으며 범인들은 7개월 이상 노트북을 집중관리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한 뒤 원격 조종으로 공격을 한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52)

북한은 탈 냉전이후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붕괴와 김일성의 사망, 그리고 북한 내 3중고로 인해 내부붕괴의 조짐을 보이는 시기였다. 이 시기 북한은 이러한 체제결속 및 내부단결을 위해 테러행위를 자제하다가 어느 정도 체제강화가 완료된 시점인 1996년부터 귀순자 이한영과 러시아 한국영사 피살 등 테러를 자행하였다. 이는 남한 사회를 불안케 하고, 북한 체제의 결속을 유지하면서 북한 이탈세력인 반북(反北) 요원에게 공포감을 주어 귀순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40여명을 납치

52) KNS뉴스통신 최도범 기자의 「한소리」, http://blog.daum.net/h21yes/204

해 북송을 위해 탈북자와 남한인사 납치를 전담하는 전문 공작조를 운영하였으며 이는 탈북자를 통한 대외적인 북한의 실상 공개를 차단하고, 대북선교와 북한주민 사회이탈 현상 방지를 위하여 계획적으로 납치 및 압송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무력 해상도발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시키고자 하였다. 이것은 북한의 대내외적인 문제의 해결, 즉 지속적인 식량난과 국제적 고립 등을 타파하고 대외적 협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로 추정된다. 기존의 NLL 무력도발과는 달리 함정 한 척의 희생을 이용한 고의적 대외전략으로 해석이 된다. 제 2차 핵실험에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한·미 양국 자극하고 특히, 당시 예정이었던 오바마 미 대통령의 동아시아 순방 및 방한에 대한 전략적 공작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스티븐 보즈워스 (Stephen W. Bosworth)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에 대비하여 북·미 양자대화 예정에 우위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추정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53]

53) 하대양 "김정일 집권기의 대남테러리즘에 관한 연구"(2011)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61~66.

제 3 장 북한의 테러전 수행 능력 분석

제 1 절 북한의 군사전략

"군사전략은 일반적으로 국가 및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 환경평가를 통해 도출된 위협의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군사력운용을 발전시키고 이를 구현하기위한 군사력 건설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54]라고 정의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한반도의 지형의 특성과 북한의 전쟁 역량을 감안하여 선제 기습공격과 배합전, 속전속결을 핵심 개념으로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 및 주변국 전쟁의 교훈과 전략 환경 변화에 따라 전법의 중점을 변화시켜 왔으며 군사전략의 틀은 변함이 없으나 전투수행 방법은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해 왔으며 북한은 기회가 조성되면 한반도를 무력으로 '공산화통일' 하겠다는 목표아래 공세적으로 군사전략을 추구해 왔다. 북한의 군사전략의 기본 개념은 한반도의 특성과 북한이 갖고 있는 전쟁역량을 고려하여 선제기습공격과 전후방동시공격, 대량화력 운용 등으로 초전부터 상대측에 대공황을 조성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55] 북한의 군사전략의 3대 핵심 개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다.

1. 배합전략

배합전략이란 모택동의 유격 전략과 구소련의 군사전략을 융합하여 한반도 실정에 맞게 만든 이른바 '주체적 전략'인데, 대규모의 정규전과 유격전을 배합하여 상대를 도처에서 공격하는 전·후방 없는 전쟁으로 남한 전

54) 권양주(2010), 『북한군사의 이해』,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p. 164.
55) 통일연구원(2009) 『2009북한개요』, 서울 : 다해미디어, p. 22.

역을 동시 전장화 한다는 것이 배합전략의 핵심내용이다. 이는 전방에 상대방 주력을 고착 시켜두고 후방에서 비대칭 전력으로 주요 시설을 타격하고 인민항쟁을 유발 시키면서 전면 공세를 취한다는 것이다.

북한군은 특수 8군단 조직을 강화하고 전선 각 집단군 예하의 경보병 부대를 여단으로 증편하여 특공전 준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AN-2기'를 대량 도입하여 특공게릴라전을 전개함으로써 정규군의 기습효과 달성을 위해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려고 하는 등 배합전략에 대해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 배합전략은 북한의 기본전선과 남한의 후방에 형성된 제 2전선과의 협동에 의한 대포위전, 갱도에 의지한 적극적인 방어전과 습격전, 산악전과 야간전, 산악조건에서의 각 군종과 병종간 협동작전, 포화력의 집중적인 이용과 유동포 활동, 전차사냥꾼 운용 등 여러 가지 작전형태를 배합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북한은 걸프전과 이라크전을 통해 미국의 첨단 유도무기와 공군력의 위력을 의식하고 나름대로 네트워크전쟁 개념을 추구하면서 재래식 전력에 의한 배합전략을 중시하게 되었다.[56]

2. 선제기습 전략

4대 군사노선을 토대로 하는 선제기습 전략은 정규군에 의한 대규모선제 기습공격으로부터 비정규군인 무장특공부대의 우회 기습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는 개념이다. 특히 군사 잠재력 면에서 열세인 북한은 이 전략을 통하여 인구수가 북한 전체 인구수와 비슷하고 경제력은 북한 GNP의 수십 배가 되는 우리의 수도권을 조기 탈취하려는 제한전을 기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57]

북한이 남한의 수도권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170mm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 다수를 점방에 전진 배치 및 증강하고, 수십 개의 비행기지를 북한 전역에 분산배치 하는 것 등을 보았을 때 북한은 앞으로도 선제기습전략을 여전히 기본적인 군사전략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다

56) 김응수(2011), 전게서, pp. 146~147.
57) 통일교육원(2011), 전게서, p.100

김일성은 정규군의 기동력을 극대화하고 비정규군의 무장을 경량화 함으로써 '속도'의 요소를 크게 중시하였으며 한국전쟁 당시에도 북한의 군사력은 대량 기습공격의 형태로 운용되었다. 선제공격 개념을 채택하고 있는 북한군 기습전략은 전술적 차원으로부터 군사상 차원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군사력 운용에 대한 제반원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58]

3. 속전속결

단기결전 내기 전격전 형식의 속전속결 전략은 흔히 속도전으로 불리기도 한다. 북한은 이를 위해 기계화·기동화·경량화된 전력을 확보하고 개량형 스커드 미사일의 양산을 비롯한 지상군 및 공군의 화력 증강, 고속상륙정 및 화력지원정 증강 등 속전속력에 필요한 공격형 무기체계 획득과 유지에 전력을 다하여 왔다. 북한은 3·4차 중동전 교훈을 통해 기동전을 중시하여 다섯 개 기갑 및 기계화 군단을 창설했다.

장차전에서 북한은 속전속결 전략에 의해 획득한 성과를 계속적으로 확대하여 무모한 전진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전략적 상황을 조성해 놓고 정치협상을 제의함으로써 미군 및 기타 한국의 우방국들로 하여금 지원구실을 봉쇄시키는 방책을 사용하여 전쟁을 지구전으로 끌고 가지 않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59]

이와 같은 북한 군사전략의 특징은 먼저 전략목표가 군사적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한 남한 적화전술이 달성됨과 동시에 성취된다고 볼 수 있으며 김일성의 창조물, 경험, 교시, 가르침 및 유일사상에 근거한다. 즉 오직 김일성의 주체적 전략사상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전쟁시 김일성은 모략 전선과 위장평화 공세로 위장 기만한 다음 기습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았을 때 북한의 군사전략은 기습공격 전략인 것이다. 북한은 휴전 이후에도 지상군 기동력과 화력을 월등하게

58) 북한연구소(1984), 『북한학보』 제 8권, 서울 : 북한연구소, pp. 271~273.
59) 김응수(2011), 전게서, p. 149.

증강하였고, 공군도 전투기와 폭격기 및 헬기 등을 확보하여 수적인 우위를 달성 하였다. 더불어 북한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4대 군사노선 방침 하에 장비 및 시설의 고도화와 최근에는 핵무기 개발에 치중하는 등 강한 군사력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전략은 국제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지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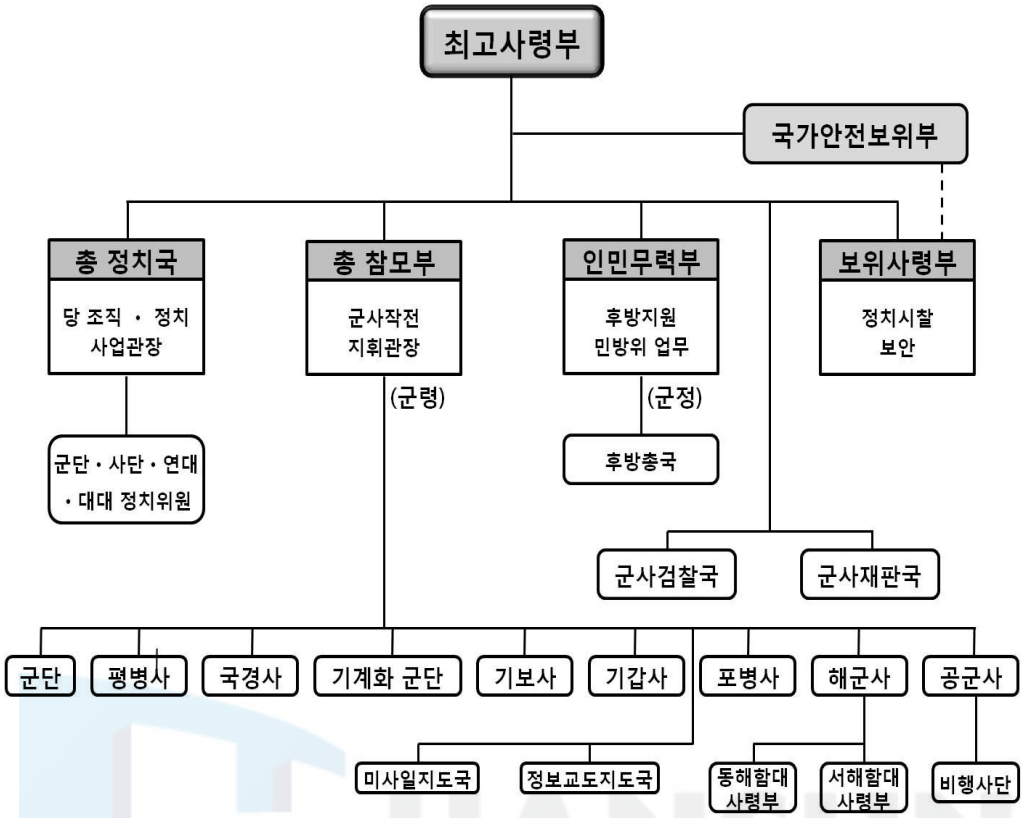
제 2 절 북한군의 조직 및 군사력

1. 군 군사기구 및 지휘체계

북한의 주요 군사기구로는 국방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인민 무력시설 등을 들 수 있다. 최고 군사지도 기관은 '국방위원회'로 1972년 사회주의헌법 채택시 김정일의 군권 장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2년 헌법개정시 최고 군사지도 기관으로 승격되었으며, 이후 1998년,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자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또한 2009년에 국가주권의 최고국방지도기관으로 규정되는 등 점차 그 기능을 강화하였다.

국방위원장은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고 국방사업의 전반을 지도한다. 총정치국은 군의 당 조직과 정치사상 사업을 관장하고, 총참모부는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령권을 행사한다. 인민무력부는 대외적으로 군을 대표하는 바, 1948년 정권 수립시 민족보위성으로 출범하여 군 관련 외교업무와 군수, 재정 등 군정권을 행상하고 1998년 헌법 개정으로 국방위원회의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다. 군 지휘체계의 세부 조직편성은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3-1> 북한 전쟁 지도기구 및 지휘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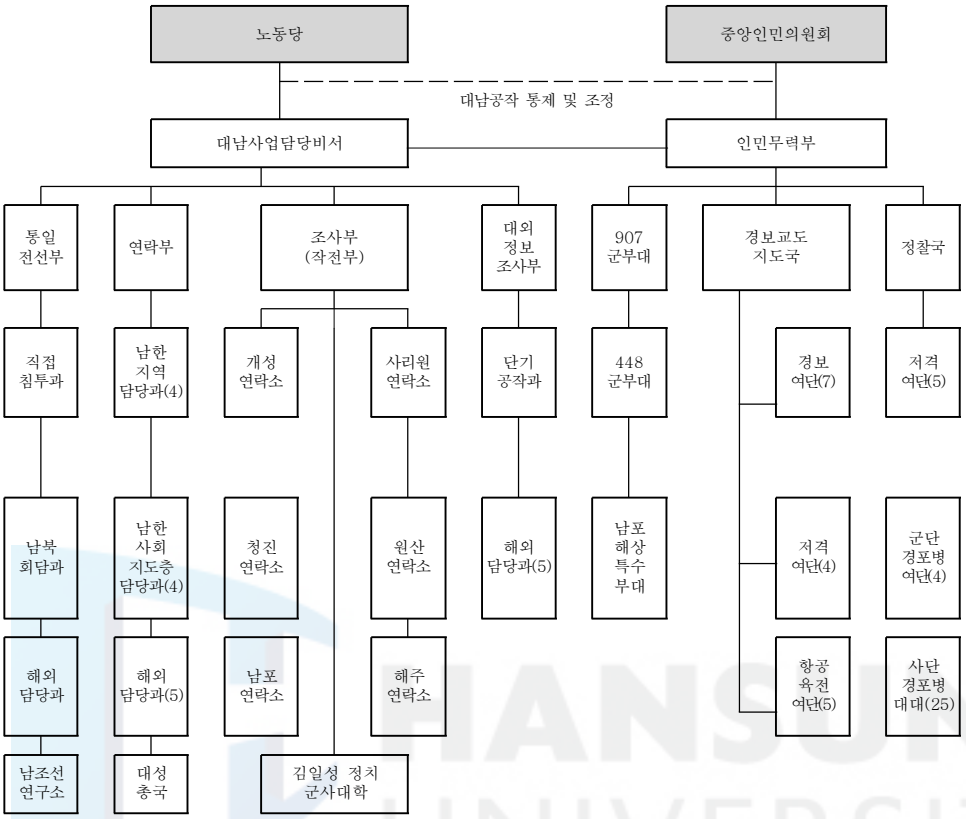


* 출처 : 김응수(2011), 『21세기 북한의 이해』, 북코리아

북한은 1962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 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한 후, 이를 추진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 산하에 군사위원회를 신설하고, 1982년 11월 당 중앙군사위원회로 개칭하였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 군사정책의 수행방법을 토의·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 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군대를 지휘한다. 아울러 총정치국은 당 중앙위원회 부서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군내에서 당의 정치 사업을 수행, 군에 대한 당의 통제 시스템으로서의 기능한다. 또한 각급부대에는 정치위원 혹은 정치지도원이 파견되어 해당 부대의 사업 전반이 당의 노선과 정책에 부합되도록 장악,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테러리즘 수행 조직은 <그림 3-2>와 같다.

<그림 3-2> 북한의 테러리즘 수행기구



* 출처 : 김태준(2006), 『테러리즘 : 이론과 실제』, 봉명

북한의 테러리즘 수행조직은 테러리즘을 위한 책임조직과 행동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부대와 같은 성격의 북한 테러리즘 책임조직은 상황에 따라 테러리즘 행동조직과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 두 조직은 실제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60]

북한의 테러조직은 구체적으로 전술 테러리즘 책임조직으로는 노동당의 통일전선부로써 직접침투, 해외공작, 대일공작 대남심리전 등을 담당하고

60) 구광모(1984), "북한의 테러전략", 『국제 정치논집 24집 2호』, 서울 : 한국 국제정치학회, p. 199.

있으며, 연락부는 공작원을 양성·훈련·침투임무를 수행하고, 조사부는 공작원의 기본교육 및 안내, 호송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2. 북한의 군사력

1) 상비전력 및 장비

2010년 11월 기준 북한의 상비전력은 육군 102만여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1만여 명으로 총 119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의 총병력 65만여 명의 1.8배 규모이다.

북한의 지상군은 9개 전·후방 군단, 2개 기계화군단, 평양방어사령부, 국경경비사령부, 미사일지도국, 제11군단(구(舊)경보교도지도국) 등 총15개 군단급 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전방지역에는 4개 군단 산하 기존 경보병대대를 연대급으로 증편하고 별도로 각각 1개의 경보병 사단을 신편 하였고, 지상군 전력의 약 70%가 평양~원산 이남의 전방지역에 전진 배치되어 있다. 이는 강습돌파(强襲突破) 위주의 전격전 개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수도 서울이 근접거리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수년간 기계화 및 전차사단을 한반도 지형에 운용하기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여단급 부대로 개편하고 전차, 기계화, 미사일부대 등을 창설하여 현대전 수행을 위한 전력구조로 개편해 놓는 등 기계화, 전차 및 특수부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또한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 최대 규모인 20여만 명의 비정규전 능력을 가진 특수부대가 있는데 해상 및 공중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인원만도 수 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이처럼 많은 특수전 병력을 보유하게 된 것은 이라크전 교훈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부대들은 유사시에는 땅굴, 공수수단, 해상침투수단 등을 활용하여 남한의 후방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침투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격과 배합전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61]

---

61) 국방부(2009), 『2008국방백서』, 서울 : 국방부, p. 25.

[표 3-1] 북한 특수전 부대의 역할

구 분	과 업 내 용
저격여단	주 전선 돌파, 82mm 박격포·방사포 보유, 전략목표물 타격, 국군 위장 침투 교란, 조직 구축
해상저격여단	함선·레이더 기지·보급기지 기습, 유격전, 고속보트·공기부양정 보유
공군저격여단	공군기지 장비·시설 타격
항공육전여단	병참시설 파괴, 증원차단, 거점 확보
군단정찰대대	밀로개척, 납치, 정찰, 폭파
경보병여단	핵심지역 장악, 지휘소 습격, 대부대 지원 6개 대대×6개 중대(120명), 60mm 박격포·휴대용 미사일 보유

* 출처 : 김응수(2011), 『21세기 북한의 이해』, 북코리아

특수전 부대는 유사시 전·후방 지역에 동시 다발적으로 침투하여 지휘 및 통신시설 파괴, 병참선 차단, 비행장 등의 주요시설 타격, 요인암살 등으로 우리의 전쟁 지속능력을 파괴하고 후방지역을 교란하는 등 전·후방 동시 전장화를 기도할 것이다.

북한 지상군은 공격 시 증원될 군단 및 인민무력부 예하 예비부대를 대부분 기동화·차량화·기계화하였을 뿐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에 기존 진지의 몇 배 규모의 위(僞)진지와 모의 장비를 설치하였다. 이는, 공격 시 이용할 갱도 진지를 전방 전개지역에 대량 구축함으로써 추가적인 준비나 부대의 재배치를 하지 않아도 기습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지상군의 또다른 특징은 신·구형 무기를 혼합한 전투장비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지상군 주요장비 중 전차는 주력전차인 T계열 전차(T-54/55/62/72 등)가 주종을 이루며, 특히 T-72를 개량한 폭풍호가 가장 위협적이다. 폭풍호는 T-72개량답게 115mm, 125mm 강선포를 사용한다. 그 외 일부 구형인 T-34 전차와 경전차도 보유하고 있다. 북한

의 전차 보유대수는 한국의 전차 보유대수 2,300여 대의 약 1.7배 수준이다. 한국이 우수한 대전차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전차의 효율성에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기는 하나, 전장종심(戰場縱深)이 짧은 한국의 수도권 지형을 고려할 때, 일단 신·구형 전차를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북한 해군은 총 810여 척의 전투함, 잠수함, 지원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약 60%가 전방기지에 전진 배치되어 있다. 수상 전투함은 경비함, 유도탄정, 어뢰정, 화력 지원정 등 420여 척이며 고속상륙정 90여 척, 공기부양정 130여 척 등 상륙함정 260여 척, 잠수함(정)은 70여 척이다. 북한의 함정은 구형 함정이 많으며 지형상 동·서 함대로 분할되어 있어 분리·운영이 불가피한 약점이 있다. 또 소형 함정이 많아 기상 악화시 기동성이 약화되고 먼 바다에서의 작전능력도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다수의 어뢰정·유도탄정 등 소형 고속정 보유와 전진배치로 장사정 해안포와 함께 전방 접적해역에서 대지, 대함 기습공격이 가능하다. 또한 동·서 해안에 사정거리 80~95km인 SAMLET 및 SILKWORM 지대함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는 바, 현재 전방에 배치된 SILKWORM은 서해의 덕적도와 동해의 속초·양양까지 공격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북한 해군은 공기 부양정(고속 상륙정)을 자체 건조하여 작전 배치하였는데, 이 장비는 40~52 노트 이상의 고속기동능력이 있어 상륙용으로 운용될 수 있다. 북한 해군 전력은 해군사령부 예하에 2개함대사와 13개 전대, 40여개 기지, 2개 해상 저격 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잠수함 전력과 신형 어뢰 등의 개발이 지속되고 있어 천안함 폭침사건에와 같이, 우리측 해군력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공군 역시 전투임무기 820여 대, 감시통제기 30여 대, 공중기동기 330여 대, 헬기 300여 대, 훈련기 170여 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평양~원산이남 기지에 전진 배치되어 기습공격이 가능한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AN-2기 및 헬기를 이용하여 저공, 저속으로 아군 후방 깊숙이 특수전 부대를 침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2) 예비전력

북한은 4대 군사노선의 하나인 전민 무장화에 따라 14세부터 60세까진 인구의 약 30%를 동원 대상으로 하여 현재 770만여 명에 달하는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화기로부터 공용화기까지 각종 전투 장비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비상소집 및 병영훈련 등으로 연간 1회 이상 각각 15~30일 간의 훈련을 받고 있다.

북한은 1958년 중국군의 철수를 계기로 1959년 1월 예비군과 민방위대 성격을 지닌 노농적위대를 조직하였고, 1963년 노농적위대 병력 중 제대군인을 주축으로 교도대를 조직하였으며, 1970년 9월에는 고등중학교(상급반) 군사조직인 붉은청년근위대를 발족시켰다.

교도대는 북한의 예비전력 중 가장 핵심으로, 만 17세 이상 50세까지의 남성과 미혼 여성 지원자(17~30세)를 대상으로 구성하여 행정단위와 직장 규모에 따라 사단과 여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만약 교도대에 입대한 대학생이 훈련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며, 2~3학년의 방학기간 6개월을 정규군과 동등하게 이수하면 소위 계급이 부여된다. 교도대는 개인화기 100%, 공용화기 70~80%가 지급되고 훈련시간도 연간 500시간에 달하는 등 현역에 준하는 고강도 훈련 및 부대편성,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전쟁발발 시 즉각 동원되어 후방방위 및 예비대로 투입된다. 현재 교도대의 총병력은 약 60만여 명이다.

2010년 9월 28일 당 대표자회 이후 노농적위대를 노농적위군으로 개칭함으로써 현역에 준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17세 이상 60세까지의 동원 가능한 남성과 17세 이상 30세까지의 여성 중 교도대 비편성자로 직장 및 행정단위별로 편성되어 있다. 그들은 민방위와 함께 직장 및 주요시설의 경계, 지역방위 및 대공방어를 기본임무로 한다. 개인화기는 100%, 공용화기는 일부 지급되어 있고, 훈련시간은 연간 160시간, 총 대원은 약 570만여 명이다.

붉은청년근위대는 중학교 4~6학년 남녀학생(14~16세)으로 조직되며 학교 단위별로 중대 또는 대대급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들은 매주 토요일 총 160시간의 교내훈련을 받고, 방학을 이용하여 7일 간 붉은청년근위대 야영

훈련소에 입영하여 실탄사격 훈련까지 받는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반혁명적 요소를 제거하여 북한체제를 사수하는 친위대로서, 전투력 향상의 선도적 역할을 하며, 유사시에는 군 하급간부 보완을 위한 후비대, 결사대로서 주요 임무를 수행한다. 개인화기는 100%, 공용화기는 일부 지급되어 있으며, 연간 450시간(과거 270시간)에 달하는 훈련을 받고 있다. 현재 약 100만여 명으로 인원과 훈련시간이 대폭 증가하였다.

기타 준군사부대로는 인민보안부, 군수물자를 지원·관리하는 군수동원지도국, 경제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속도전 청년돌격대 등, 약 40만여 명에 이르는 예비병력이 있다. 또한 이들은 상시적으로 즉각 동원이 가능하다.

3) 핵개발 능력과 미사일

북한은 전략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핵, 타도미사일, 화생무기 등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는 비대칭 무기 개발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군사력 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체제의 결속을 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핵 실험과 전략무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로 인해 심각한 불안을 야기하였으며, 국제사회의 반발과 제재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국제사회는 '북한의 1, 2차 핵실험' 등을 국제 비핵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1960년대부터 소련 최대의 핵 연구소인 「듀브나 핵 연구소」에 핵물리학자를 파견해 연구하게 하였다. 북한의 핵관련 전문 인력은 고급인력 200여 명을 포함하여 약 3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지역에 매장된 우라늄의 가채량은 약 4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980년대 접어들면서 그들은 본격적으로 핵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아울러 핵개발 업무에 종사하다 원자력 발전 관련 질병에 걸린 과학기술자도 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1960년대 중반 소련에서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한 이래, 원자로 설계기술 개발에 많은 공을 들였다. 1970년대에는 연구용 원자로의 출력확

장 기술을 자체 개발하였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핵연료 확보에서 재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현재까지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 하지만 최근 핵실험과 2010년 11월 20일 북한이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2,000기 보유에 대한 공개 등을 볼 때 핵무기 개발 능력을 충분히 보유한 것으로 예상된다.

핵무기 개발을 위해서는 핵물질, 핵장치의 설계·제조 및 고폭 실험, 핵실험, 핵장치의 소형화·경량화, 전문 인력 등을 필요로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은 이미 기본적인 요소들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핵 신고 내용을 토대로 핵 물질 플라토늄 양 37Kg과 기존 핵연료봉 8,000개를 완전히 재처리하여 7~8Kg의 플라토늄을 추가하면 약 45Kg 안팎으로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핵무기 1기 제조에 필요한 플라토늄 양에 대해서 제조국의 기술수준에 따라 3~8Kg으로 전문가마다 의견을 달리하지만, 북한은 대체로 약 3kg의 플루토늄으로 표준형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중급 수준의 핵무기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62] 이를 기초로 볼 때 북한은 최대 10~15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능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63]

북한은 이미 우라늄 채굴과 가공, 원자로 운용, 핵연료 재처리 등을 통해 연간 1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완전한 핵 주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 파키스탄으로부터 전수받은 원심분리방식 우라늄탄 제조능력을 이용해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할 경우, 몇 차례의 추가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소형화는 그야말로 시간문제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소량의 플루토늄을 사용해 소규모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스스로 증명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압도적 우위인 비대칭 전력을 선점함으로써 남북한 간 힘의 균형인 이른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의 추를 쥔 셈이 되었다.[64]

---

62) Robert S. Norris and Hans M. Kristensen(2005),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2005",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61, no.33, pp. 64-67.

63) 문광건 외 2명(2007), "국제군비통제 관점에서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정책연구 07-03호』, 성남 : 세종연구소, p. 6.

64) 염상원(2009), "북한 핵정책과 테러리즘 연계성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또한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화생무기의 연구시설 및 생산기구를 설치하여 이의 개발 및 생산에도 주력해 왔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 문제에 가려져 군사쟁점으로 크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으나, 이 역시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요인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현재 강계·용성 등에 화학무기 개발을 위한 연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흥남·만포·아오지·청진 등에 생산시설을 가동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화학무기의 종류로는 수포성·신경성·질식성·혈액성·최루성 등의 유독가스 17종 2,500~5,000여 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화학무기는 투발수단과 화학작용제, 풍향, 풍속 등의 기상 여건에 따라 살상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투발시 사상자 수는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 투발 수단에 따라 탄의 무게도 다르고 호학작용제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효과도 다르다. 북한군 야포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122mm 포를 기준으로 효과를 판단해 보면 122mm 1개 대대 18문으로 1발씩 투발할 경우, 일시에 3만 6,000m^2를 오염시킬 수 있다. 이는 개략 축구장(105m x 68m) 5개 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계산에 의하면 화학작용제 5,000톤은 약 2,500km^2 즉 서울시 면적(605$km^2$2)의 약 4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양에 해당된다.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1,000톤 정도면 한반도 지역에서 4,천만 명을 살상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65]

북한은 1960년 생물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다. 국방부가 2009년 10월 5일 국회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탄저균,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페스트, 브루셀라야토균, 발진티브스, 천연두, 유행성출혈열, 황열병, 보툴리늄독소, 황우(Yellow Rain)등 13종의 생물학 작용제균체를 갖고 있고 유사시에는 이들 균을 자체배양·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66]

북한은 생물무기를 군단급 탄약고에 저장하여 유사시 즉각 사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67] 북한의 생물무기는 주로 후방지역의 지휘본부

논문, p. 42.

65) 이민룡(2003), 『김정일체제의 북한군 대해부』, 서울 : 황금알, p. 120.

66) 권양주(2010),전게서, p. 162.

67) 북한연구원(2006), 『북한의 군사』 서울 : 경인문화사, p. 379.

및 주요시설물, 병력집결지, 후방보급소, 비행장, 주요산업중심지, 해군지상기지 등에 운용하여 전쟁지속능력을 제한하고 필요시 전방지역에도 사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미사일 기술도입에 주력한 결과 1986년에는 거의 100% 독자 생산단계로 발전하였고, 현재 연간 약 100여 기의 스커드 B/C형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자체 개발한 미사일을 이란·리비아 등 중동지역에 수출하였다.

또한 그들은 1970년대부터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여 1980년대 중반에는 SCUD-B와 SCUD-C를 생산하여 작전배치 하였다. 이후 1990년대에는 사정거리가 1,300km인 노동미사일을 작전배치 하였으며, 2007년에는 사거리 3,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작전배치 함으로써 한반도를 넘어 일본과 괌 등도 사정범위에 포함시켰다. 2006년 7월 5일에는 대포동 2호와 스커드·노동미사일 등 다수를 시험 발사하였다. 또한 북한은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였으며, 같은 해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동해안에서 단거리미사일 6발을 발사하였다.

美국방부는 2010년 2월초 '2010년 탄도미사일 방어계획 검토보고서'에서 2009년 4월 4에 실시된 대포동 2호의 시험발사는 실패했지만 "ICBM 개발을 위한 기술은 성공적 이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은 앞으로 10년 내에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며 조만 간대포동 2호미사일 시험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했다.[68] 북한의 지금까지의 동향과 제반기능을 고려해볼 때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69]

이러한 미사일은 일반적으로 원거리로부터 공격능력, 예고시간이 짧은 기습성, 잠재능력 등으로 인해 공포감을 준다. 현재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현재 미국 본토에 도달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이다. 발사탐지 후 15분-30분 만에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장차 WMD 탑재 능력을 갖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70]

---

68) 권양주(2010), 전게서, p. 249.
69) 국방부(2009), 전게서, p. 29.
70) 송재형(2007), 전게논문, p. 38.

제 3 절 북한의 사이버전 수행 능력

군 관계자들은 북한이 사이버전 수행능력을 제대로 갖추기 시작한 지는 그리 오래지 않다고 보고있다. 2004년 5월 당시 국군기무사령관은 "김 위원장의 직접 지시로 정예의 해킹부대를 운영해 우리 측 국가기관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김정일의 결정적인 주문은 2007년 3월쯤이었다. 평양시 근교의 한 공장을 시찰하면서 "현대전은 전자전이다. 적의 전자전 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전술을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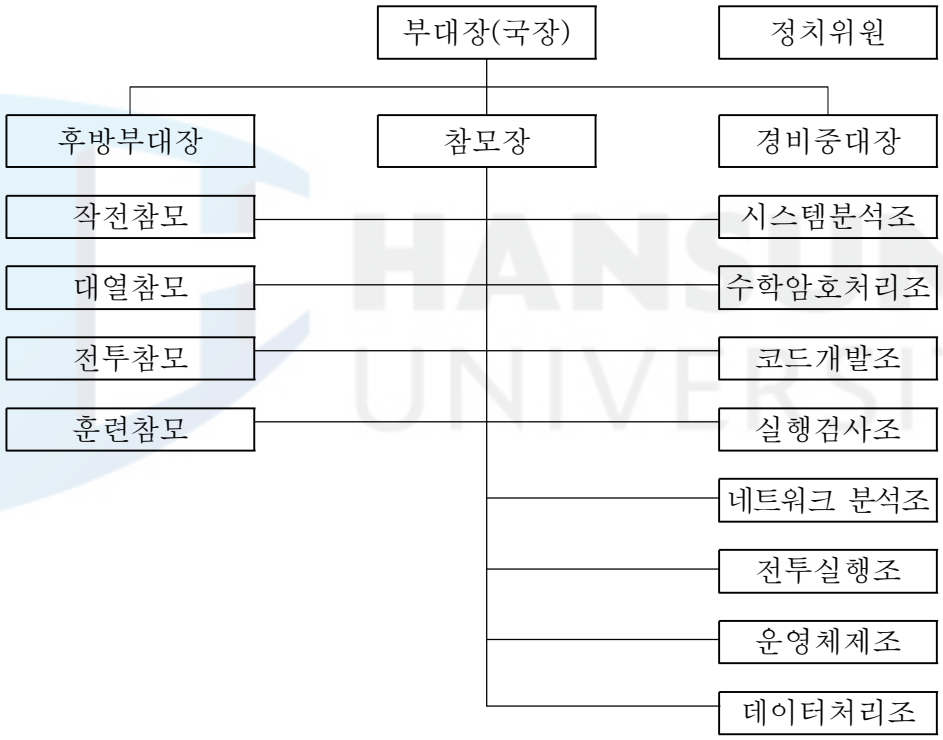
북한은 사이버전을 위하여 1995년경, 중앙과 도소재지들에만 설치되어 있던 1중학교(영재학교)를 시, 군, 구역마다 하나씩 세우고 중앙에는 평양 1중학교 외에 금성 1중학교와 2중학교에 컴퓨터 영재반을 새로 조직하였다. 영재들이 시, 군, 구역단위로 북한 전역에서 선발되고, 최우수자는 도 1중학교를 거쳐 평양에 있는 금성 1·2중학교 컴퓨터 영재반에 입학하게 된다. 졸업 후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컴퓨터대학, 미림대학에 우선 입학 시켜 전문기술을 가르치고 특별 관리한다.[71] 해커 양성의 핵심기관은 평양시 미림동에 위치한 일명 '미림대학'으로 알려졌다. 정식 명칭은 지휘자동화대학이었는데, 김일군사대학으로 개명했다. 1986년 옛 소련 국방부의 지원으로 세운 5년제이며 매년 100여 명의 컴퓨터 전문가를 키워낸다. 군 관계자는 "미림대 출신을 주축으로 다른 대학 '컴퓨터과학' 전공자를 합쳐 정예 150여 명을 추린다. 이들이 기본교육 1년을 마치면 군관(장교)으로 임관된다"고 말했다. "이후 정찰총국이 직할 운영하는 압록강군사대학(평양시 사동구역 소재, 대남공작원 양성기관으로 알려짐)으로 보내 '사이버전사'로 양성한다. 이들 중 우수자를 선발해 신분을 세탁한 뒤, 중국·러시아·유럽 등에 소재한 박사급 과정에 유학도 보낸다.[72] 또한 북한은 사이버전 작전과 전투실행, 명령지휘체계를 일체화하기 위한 사이버 공격시스템 완성에 주력하고 있다. 해커들이 사용할 고성능 컴퓨터를 비롯한 첨

71) 김홍광(2011), "북한의 정보전 전략과 그 수행 방법", 『제19회 국방·군사 세미나 논문집』, 서울 : 한국군사학회, p. 13.
72) 진화하는 북한의 사이버테러 http://blog.daum.net/haj4062/15725136

단 장비들을 중국과 해외에서 대량구입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독립적인 해킹공격 능력을 갖추어 복수의 공격조를 운영해오던 종전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폭 개편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시스템 분석팀, 공격작전팀, 코드처리팀, 개발팀, 검사팀, 네트워크분석팀, 전투기획팀 등 다수의 직능 팀들이 일사분란하게 명령체계에 따라 작동한다.[73]

북한의 사이버전력 조직을 살펴보면 정찰국 121국, 중앙당 35호실 기초자료조사실, 총참모부 적공국 204소 등 수개의 집단이 있다. 먼저 정찰국 121국은 1998년 설립되었으며 인원은 2010년 말 기준 3천명으로 주요임무는 적대국의 사회 및 군 시설 관련 컴퓨터망에 대한 인터넷 해킹, 사이버 공격이다. 정찰국 121국의 조직 구조는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3-3> 정찰국 121국 조직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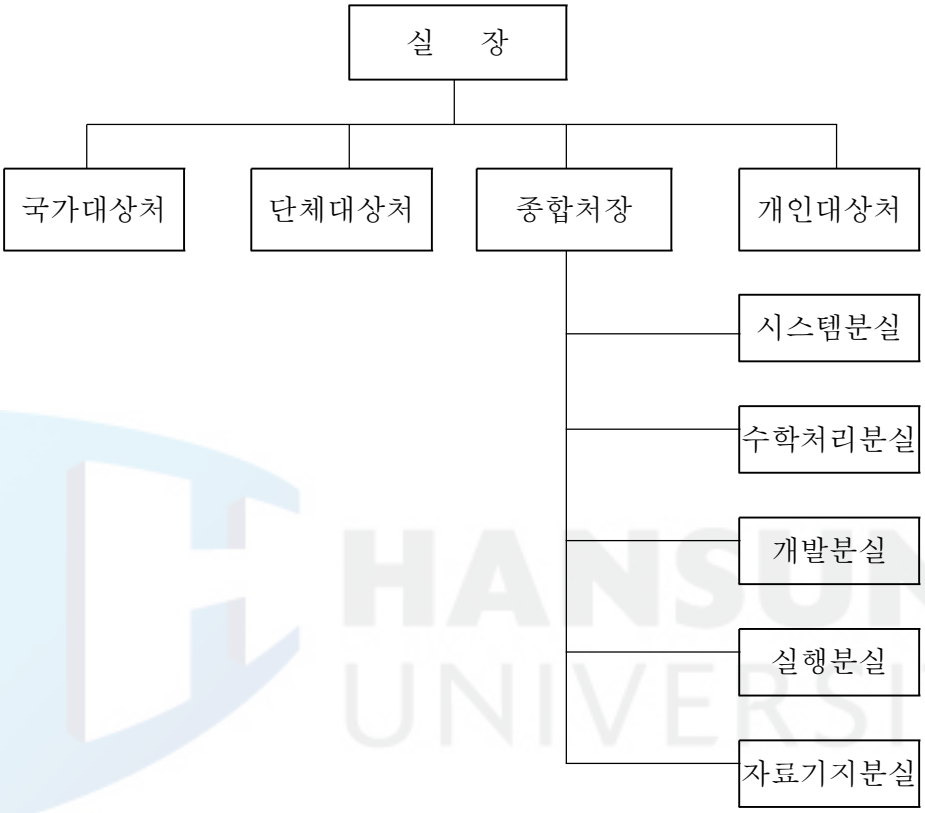


* 출처 : 김홍광(2011),『북한의 정보전 전략과 그 수행 방법』, 한국군사학회

73) 김홍광(2011), 전게서, p. 9.

중앙당 35호실 기초 자료실은 1995년 설립되었으며, 인원은 2003년 기준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임무는 중앙당 부서들에서 필요로 하는 다른 나라 국가기관, 단체, 개인들에 대한 기밀자료들을 인터넷을 통하여 해킹, 수집하는 것으로 조직 구조는 <그림 3-4>에서 보는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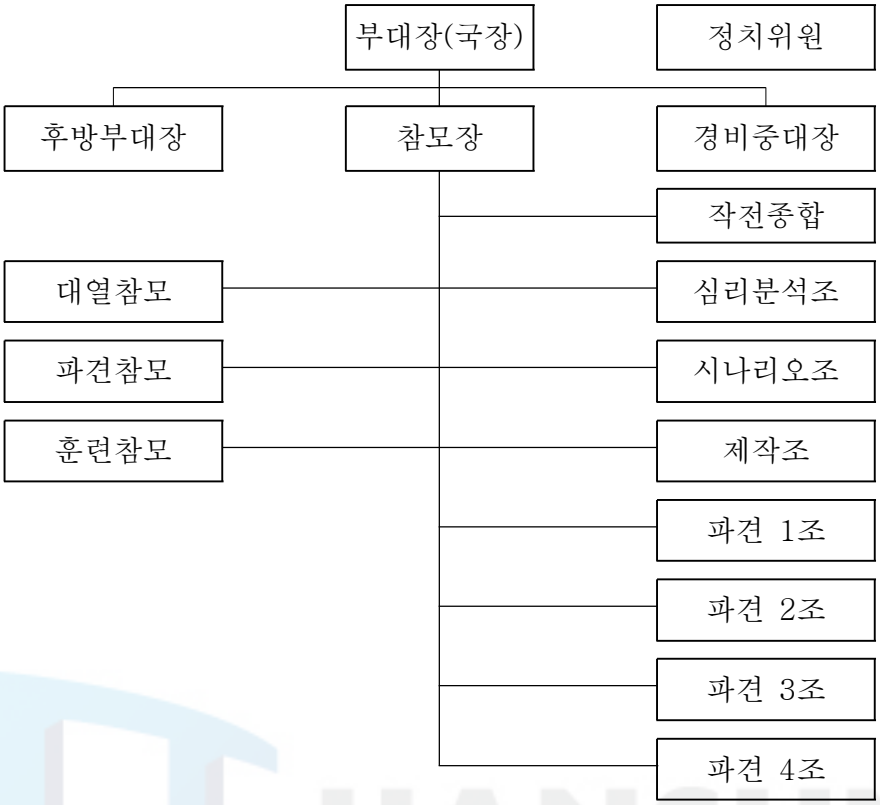
<그림 3-4> 중앙당 35호실 기초자료실 조직구조



* 출처 : 김홍광(2011),『북한의 정보전 전략과 그 수행 방법』

총참모부 적공국 204소는 1999년경 성립되었으며 인원은 2003년 기준 2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주요임무는 국군장병 및 남한 청소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심리전, 사이버통일전선운영이다. 조직 구조는 <그림 3-5>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3-5> 총참모부 적공국 204소 조직구조



* 출처 : 김홍광(2011),『북한의 정보전 전략과 그 수행 방법』

북한군 총참모부는 정찰국 121소와 적공국 204소에 각 대학, 연구소의 소프트웨어, 컴퓨터 네트워크, 수학 영재들을 소환 배치하여 능력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북한 최고의 컴퓨터영재학교인 금성 1·2중학교 졸업생들 가운데 최우수생들을 선발, 입대시키고 있으며 정찰국 121소를 세계 최정예 사이버전부대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시설과 장비, 기재들을 완벽하게 보장하기 위해 막대한 외화를 투자하고 있다. 김정일의 직접적인 관심에 힘을 얻은 정찰국 121소는 새로운 형식과 지대한 파괴력을 가진 2차 사입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의 DDos공격을 발전시킨 VDDos공격이 그중 하나이며 인터넷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보안이 완벽하다고 장담하는 전략적 기관들의 인트라넷을 뚫기 위한

공격준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74]

북한은 이라크전의 교훈에 기초하여 사이버전의 기본 틀을 완성하였으며 북한 내 인트라넷에서의 충분한 훈련과, 세계 사이버침해사례들을 분석하고 각종 바이러스나 스파이웨어, 트로이 목마, 스니퍼와 같은 해킹 툴들을 직접 만들어 전파한다. 뿐만 아니라 프로들이 만든 해킹 툴을 직접 다뤄보면서 새로운 해킹수법들과 도구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다.

북한은 기초수학의 토대가 비교적 탄탄한 특성을 이용해 각종 암호작성 및 암호해독 알고리즘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공격실천에 도입하는 과정들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사이버테러전에 특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75]

정보당국과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해킹 기술을 미국 중앙정보국(CIA)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3일 “북한의 사이버전 능력은 전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라면서 “지난 4월 농협 전산망 마비사태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DDos 공격 등을 보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74) 김홍광(2011), 전게서, p. 19.
75) 김홍광(2011), 상게서, p. 20.

제 4 장 향후 북한의 대남테러리즘 전망

1987년 대한항공 858기 공중폭파 이후 북한의 테러리즘 획책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테러리즘 정책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에 대해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에 전면적인 무력전쟁을 도발하지 못했다. 이러한 판단아래 북한은 전면전이 아닌 비정규전 방식의 하나인 테러리즘 정책을 추구해 왔던 것이다. 또한 걸프전을 통해 북한이 깨달은 것은, 만약 남한을 상대로 전면전을 일으킬 경우 충분히 패배의 가능성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도 테러리즘 정책을 고수하면서 남한내부의 불안과 혼란 상태를 야기 시키고, 최종 목표인 무력적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974년 김일성의 후계자로 등장한 김정일이 지금까지 주도해온 대남전략전술은 폭력과 돌발적인 테러리즘으로 일관되어 오고 있다. 김정일이 권력의 중심부로 등장한 1980년대 초에 북한의 정보 및 보안기구들이 재조직되었고, 김정일이 이들 기관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북한은 대외정책으로 테러리즘을 더욱 확고히 했으며 국제 테러리스트 단체에 대한 지원에도 주력해 왔다.

1996년과 1998년에 발생한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에서 잘 나타났듯이 북한 정권은 여전히 한국 정부를 통일을 위한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적화통일을 위해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때문에, 1980년대 후반부터 국제정세는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로 전환되어가고 있지만, 한반도만은 여전히 냉각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외개방노선이나 평화적 제스처는 모두 허구이며, 대남정책에 있어서는 폭력과 테러리즘에 근본을 두고 있음을 우리는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계속되는 압력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테러리즘 노선의 포기

를 아직까지 선언하지 않고 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깊게 새겨봐야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대남테러리즘의 전략은 강대국들의 직접적 관여를 회피하고 그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대남테러를 이용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것은 내부적 단합과 군기 확립을 꾀하고, 외교적으로 협박과 협상을 반복하며 가능한한 최장기간 체제 유지를 지속하기위한 끊임없는 방책일 것이다. 이에 따른 상세한 전망은 다음과 같다.

제 1 절 국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테러전 수행 가능성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의 해로 지정하고, 강성대국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정치적 사상적 군사적으로 강성대국의 목표에 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과 러시아가 대선이 있는 시기이며 중국역시 새로운 지도자가 권력을 이양 받는 시기이다. 북한에게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을 앞두고 우리나라와 미국대선에서의 전략 로드맵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게 북한은 안보의 대상이자, 통일을 지향하는 동반자적 대상으로서 떼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대선에서 매우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찰국가를 자처하는 미국 또한,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잘 관리해야 집권여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음을 여실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강성대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선을 활용 할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에 대해 공격 및 협박을 가하고 위협함으로써, 국제협상에서 이득을 취하고 보상 또는 태도 변화 등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북한의 독제체제를 유지하고 세습하고자 하는 퇴행성이 결합된 측면도 있으며 소위 '벼랑끝 전술' 혹은 '군사모험주의'는 이를 뒷받침하는 대외조치의 일환으로 작용할 것이다.

제 2 절 내부적 위기극복 차원의 물리적 테러전 가능성

북한은 1990년대 중반에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 심각한 경제위기와 식량난, 김일성의 사망 등으로 인해 최대의 위기상황에 직면하였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주체농법' 실패, '농정' 실패, '집단영농 방식에 의한 농업생산력 저하' 등의 요인으로 식량난이 시작 되었고, 1990년대에 이르러 자연재해와 경제난으로 생산량의 절대 감소,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역 축소 등, 기근 상황을 맞게 되었다. 2000년대 우리나라의 식량과 비료지원, 국제사회의 생산지원 등으로 식량생산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부족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북한은 경제회복차원에서 2002년 7·1 조치[76]를 취했으나 계획경제의 기본 틀 내에서 일부 시장공간을 허용하여 공식 계획경제 부문을 정상화하는 제한적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공급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타개하지는 못하였다. 7·1조치 이후의 시장화 현상들은 북한 당국이 의도했던 것보다 빠르게 통제되지 않는 시장공간의 확산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는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심각한 체제위기의식을 갖게 만들고, 2012년 강성대국 달성과 3대 세습체제 안착에도 장애가 있을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에 북한은 2009년 화폐개혁[77]을 추진하였다. 화폐개혁과 동시에 종합시장 폐쇄 및 과거형태(10일장)의 농민시장으로 전환하고, 외화 사용금지 포고령, 각 기관 단위로 난립하고 있는 무역회사들의 무역성 산하로 이관 시켰다. 또한, 주민이 보유하고 있는 상한선 이상의 북한 원화 및 외화를 모두 당국에 납부, 1:100 조치에 맞추어 모든 시장 거래가격을 강제로 내리게 하였다. 그러나 화폐개혁으로 인한 종합시장을 철폐하고 모든 물자 공급을 국영공급망으로 유통시키라는 강제적 조치는 심각한 물자 부족 사태를 초래하였다. 이는 국영기업소·기관들의 경제활동마저 멈추게 하는 경제 전반의 심각한 혼란을 가져왔다. 화폐개혁이 미친 경제적 영향들은 심각한 모순을 가지고 있는 북한 경제의 모순을 더욱 누적 시키고 민생경

76) 군수생산 부문은 계획경제 시스템을 통해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민수 생산 부문의 경우 분권화 조치와 일부 시장경제 기능의 도입을 통해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경제관리 개선조치

77) 신·구화폐를 1:100으로 교환하고 가구당 북한 원화 10만원까지만 교환해 주는 조치

제를 악화 시켜 3대 세습체제 구축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북한의 지속되는 경제 및 식량난으로 인한 내부 불만의 고조 등은 체제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북한은 경제난과 자연재해에서 파생된 체제위기를 선군정치를 통해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적대적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대남테러를 계속해서 자행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 대중의 동원과 지속적인 공격적 행위를 감행, 전쟁 발생에 대한 긴장감과 위기감을 조성하고, 내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발판과 당국에 유리한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 그로인해 내적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체제위기전환의 한 방편으로 남한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을 것이며, 특히 핵과 미사일 등을 이용한 물리적 테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1세기 첨단화된 과학기술과 무기체계는 다양한 방법의 테러 선택을 가능케 하며 북한 또한 그러할 것이다.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테러는 먼저 핵 테러의 가능성이다. 일반적으로 핵무기는 전형적인 전략무기라는데 있어서 적대 또는 경쟁국가에게 가장 큰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 전략무기는 평시라도 상대국에게 정치 외교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것은 전술무기나 군사무기처럼 전장을 형성함으로써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전평시를 초월해 정치적·군사적 목적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 핵무기급으로서 폭발장치를 최대 1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으로 그들은 한국에 대해 적어도 전략적 위협능력과 억지력은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화생방 무기를 이용한 테러이다. 화학무기금지협정 미가입국인 북한은 2500 ~ 5000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이 다중이용시설에 화학 작용제 등 독가스를 살포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 및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생물학 테러 위협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생물학 무기로 탄저균·콜레라균·발진장티푸스균·천연두균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탄저균을 연간 1톤가량 생산하는 능력을 갖추었다.

이러한 북한의 현재 보유하고 있는 100mm이상 박격포, 스커드 및 노동미사일, 전투기, 폭격기 등 다양 투발수단을 활용한다면, 전·후방 동시 화생방 공격이 가능할 것이다.

제 3 절 사이버테러 위협 가능성 증가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북한은 1995년경부터 사이버전력 확보를 위한 전략 수집과 부대창설, 사이버 공격기술 연마, 지휘체계구축에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수천명 규모의 사이버공격 요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유럽,미국 등 주요 해외 거점에 정예 요원들이 상주하면서 언제, 어느 곳이라도 목표만 정해지면 사이버테러를 가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모두 북한의 짓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 정부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은 최근수년간 폭증세를 보였다. 2004년 초부터 2010년 10월까지 발생한 4만8천여 건 가운데 20% 가까운 9천200여 건이 2010년 1~10월, 10개월간 자행됐다. 특히 해킹에 의한 군사기밀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 작년 10월 공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1~3월에만 2급기밀 123건, 3급기밀 78건, 훈련비밀 1천467건, 대외비 95건이 군에서 해킹당했다. 군에 대한 해킹 시도도 2008년 2천800만건, 2009년 3천400만건에서작년 상반기에만 7천600만건이나 적발됐다. 정부와 군이 해커들과 매일 '총성 없는'전쟁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사이버테러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며 실패 시 특별한 손해가 없다. 그리고 제 3국에서의 공격으로 배후를 드러내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처럼 IT강국일 수록 높은 정보 의존도로 인해 사이버 테러리즘이 더욱 치명적이다. 북한은 군사적 제약과 공개성 때문에 현실세계에 대한 개입과 공격은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사이버공간을 잘 활용하면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사이버전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이버테러를 감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구축 및 유지비용이 타 전력에 비해 적게 든다는 점이다. 핵무기나, 전차, 전투기 등 대칭전력은 초기 구축비용이나 이후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나 사이버전력은 전문적으로 해커들을 양성하고 인터넷 시설만 구비하면 되며, 이후 추가적인 유지관리비용은 얼마 들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은 심각한 경제난으로 남한보다 대칭 및 비대칭무력에서

현격한 열세를 메우고 분주하던 북한에게 있어서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력분야라 할 수 있다. 둘째, 사이버전은 공격행위에 관한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물리적으로 침입하지 않고도 중국 등 타 지역에서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남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지난 2005년 1.25 인터넷 대란, 2009년 7.7DDos 공격, 올해 3.4DDos 공격, 그리고 지난 4월 농협전산망 테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한국검찰 조사 결과 공격 진원지 IP주소는 북한군 행킹요원들이 쓰는 것으로 판명 났지만 그것이 중국경내의 IP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꼭 집어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다.[78] 셋째, 사이버 세계는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개방형이다. 해킹방지를 위해 전세계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시스템을 개조하려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기하학적인 비용이 들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인터넷의 기술적 허점을 이용해 사이버전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사이버상에는 공권력이 덜 미친다. 정부는 정보통신 관련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사이버상의 어떠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하거나 강제(强制)할 수 없다. 이에 북한은 사이버세계를 이용해 우리국민들의 의식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각종 유언비어와 여론을 조작하여 즉시적으로 손쉽게 유포시키고 있다. 앞서 언급한 이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은 사이버 공간에서 더욱 강도 있는 테러리즘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사이버테러 전략을 더욱 완성시키면서 사이버능력함양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현재 개편한 사이버해킹부대의 활동을 고조로 조직화, 지능화하고 협동작전능력들을 높여나가며 정찰총국의 사이버테러지휘능력을 보다 완성하기 위한 갖은 노력을 다할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세계에서 남한에 대한 각종 공격과 침해행위들은 지금보다 몇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79]

9·11테러 이후 세계 각국이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게 추를 옮길 만큼 사이버 공간은 테러 영역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

78) 김홍광(2011), 전게서, p. 6.
79) 김홍광(2011), 상게서, p. 20.

서도 대부분 사이버공간의 편의성과 이용 촉진에만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80]

이러한 사이버 테러리즘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보보호 기술을 개발하고 동맹국 간의 사이버 테러리즘과 관련한 조약을 체결이 필요하나, 하지만 이 방법에도 분명 한계는 있다. 동맹국 중에서 가장 취약한 지점을 노려 다른 동맹국의 정보 통신망이나 사회기반시설에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테러리즘에 관한 각국의 기술 격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정보보호와 관련한 국가 간 기술적 협력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80) 최정호(2008), "사이버테러리즘의 변천방향과 한국의 대응", 『국방안보학술회의 자료』, 서울 : 한국정책학회, pp. 158~159

제 5 장 결 론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향후에도 북한은 대남 테러는 지속될 것이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일관된 행동패턴을 유지해왔으며, 비정상적 도발을 일삼아 원하는 이익과 결과를 얻어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군사적 수단을 하나의 방법론으로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대화·협력의 방식도 위장하거나 무력수단과 함께 병행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식량난과, 국제적 고립 등,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군사도발을 지속적으로 자행하여 대한민국 사회의 혼란과 불안을 조성하는 대남테러리즘을 감행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한의 대남테러리즘의 특성과 분석을 통하여 날로 발전하고 다양화되는 북한의 대남테러리즘을 전망하고자 했다.

북한 테러리즘의 특징은 국가 최고 지도자의 지휘아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지원 테러리즘이며, 내부의 불만을 해소하거나 이를 외부로 분산시시켜 남한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시킨다는 점이다. 이러한 북한의 직접적인 테러 대상은 남한으로 한정되어 있고, 국제혁명 역량강화를 위해 해외로 폭력을 수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35개국 60여 개 국제조직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북한이 앞에서는 대화를 일면에서는 대남테러를 자행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그들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적화통일에 대한 목표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것은 곧 북한의 대남테러리즘과 테러에 대한 위협이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북한은 대남테러를 이용하여 내부적 단합과 군기 확립을 꾀하고, 외교적으로 협박과 협상을 반복하며 가능한 한 최장기간 체제 유지를 지속하기 위해 끊임없이 방책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2012년도 국제 환경변화는 북한의 대남테러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앞서 분석했듯 북한은 2012년에 있을 우리나라 및 미국의 대선과 핵안

보 정상회담 등 국제환경변화를 호기(好機)로, 경제난과 자연재해에서 파생된 체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적대적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대중의 동원과 지속적인 공격 행위를 통한 긴장감과 위기감을 야기할 것이며, 내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그리고 당국에 유리한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테러를 자행할 것이다. 또한 그들에게 테러는 체제위기전환, 내적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남한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보다 유용한 방편이 될 것이다. 구축 및 유지비용이 적게 들고, 공격행위에 관한 구분이 어려우며, 무엇보다 그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이버테러 등을 통하여, 또 그 외, 여러 방법들을 동원하여, 북한은 대남 테러리즘을 끝까지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 과거 재래식 도발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도발을 신속히 대처하도록 대테러전 수행역량을 강화하고 북한 핵문제의 억제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비핵화, 비확산 등 한미동맹을 통한 협력 등 견고고 튼실한 대남테러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논문이 제시한 북한의 대남테러리즘 위협분석과 전망은 향후 유익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날로 발전되는 북한의 대남테러리즘과 이에 관한 대응방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연구하지 못한 부분은 이후의 연구자들에 의하여 밝혀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가. 단 행 본

권양주(2010),『북한군사의 이해』,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김응수(2011),『21세기 북한의 이해』성남 : 북코리아.

김태준(2006),『테러리즘 : 이론과 실제』, 서울 : 봉명.

이민룡(2003),『김정일체제의 북한군 대해부』, 서울 : 황금알.

이태윤(2004),『새로운 전쟁 21세기 국제테러리즘 : 미 9·11테러와 대테러 전쟁의 실체』, 서울: 모시는 사람들.

여영무(1999),『테러리즘과 저항권』, 서울 : 나남.

최진태(1997),『테러,테러리스트&테러리즘』, 서울: 대영문화사.

_____(2009),『국가안보와 대테러전략』, 서울: 대영문화사.

통일교육원(2011),『북한 이해』, 서울 : 정우디피씨.

_____(2009),『2009북한개요』, 서울 : 다해미디어

나. 논 문

김용호(2007), “북한 테러리즘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응수(2008), “테러리즘의 초국가성 확산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태진(2004), “국제테러조직의 동향과 대응책”,『테러정책연구논총』서울 : 국정원

송재형(2007), “대량살상무기(WMD) 테러리즘의 확산 가능성과 대응의 한계” 한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용석(2003), “韓國의 테러리즘 對應方案에 관한 硏究 : 북한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여환명(2003), “북한의 對南테러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염상원(2009), “북한 핵정책과 테러리즘 연계성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하대양(2011), “김정일 집권기의 대남테러리즘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다. 정기간행물 및 학술지

구광모(1984), “북한의 테러전략”, 『국제 정치논집 24집 2호』, 서울 : 한국국제정치학회.
구춘권(2007),『메가테러리즘과 미국의 세계질서전쟁』, 서울 : 책세상.
국방대학교(1992),『저강도 분쟁이론』, 서울 : 국방대학원.
국방부(2009),『2008국방백서』, 서울 : 국방부.
_____(2008),『정신교육 기본교재』, 서울 : 국방부.
김응수(2009), “탈냉전 이후 초국가적 테러리즘의 확산과 군사적 대응”, 『국가위기관리 회보』, 서울 : 국가위기관리학회.
김홍광(2011), “북한의 정보전 전략과 그 수행 방법”, 『제19회 국방·군사 세미나 논문집』, 서울 : 한국군사학회.
도희윤(2005), “김동식 목사와 진경숙 씨를 송환하라”, 『시대정신 통권 28호』, 서울 : 시대정신
무라타 노부히코(2009), “1986년 김포공항 테러는 북한 청부받은 아부 니달 조직 소행”, 『월간조선 3월호』, 서울 : 조선일보
문광건 외 2명(2007), “국제군비통제 관점에서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정책연구 07-03호』,성남 :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소(1984),『북한학보』 제 8권, 서울 : 북한연구소.
북한연구원(2006),『북한의군사』 서울 : 경인문화사.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1996), 『북한의 납치·테러범죄 전모』, 서울 :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백영철(2001), “사이버 테러에 관한 연구”,『대테러 연구제 23집』, 서울 : 경찰청.

이장희(2001), “국제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과 과제”,『테러리즘에 대한 법적 조명과 그대응방안』, 서울 :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최진태(1995), “북한의 테러리즘에 관한 고찰”, 『국방논집 제 29호』, 서울 : 산하
최정호(2008), “사이버테러리즘의 변천방향과 한국의 대응”, 『국방안보 학술회의 자료』, 서울 : 한국정책학회
합동참모본부(1999), “새로운형태의 전쟁은 완전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걸프전과 코소보 사태에서 이미그러한 전조는 나타나고 있다”,『코소보전쟁 종합분석』, 서울 : 합동참모부

2. 국외문헌

Cline, Rays S. and Alexander, Yonah,『Terrorism : The Soviet Connection』, Crane Russak
Kai Hirschmann(2003),『Terrorismus』, Hamdrug : Europäische Verlagsanstalt
Norris, Robert S. and Kristensen Hans M. (2005),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2005”,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61, no.33.
U.S. National War College(1986),『Terrorism』, Washington, D. C .: U. S. National War Colleg.
Wilkinson, Paul(1986), 『Terrorism and the Liberal State, 2nd Reu. ed』, New York : New York University Press.

3. 기타 자료

북한의 테러리즘, (http://blog.naver.com/sugugo/100001752100)
북한의 도발 「김포공항 폭파사건」,(http://ktx111.blog.me/125212058)
진화하는 북한의 사이버테러, (http://blog.daum.net/haj4062/15725136)
KNS뉴스통신 최도범 기자의 「한소리」, (http://blog.daum.net/h21yes/204)

ABSTRACT

Against the south terrorism threat analysis and prospect of North Korea

Park, Hyeon Ryeong
Major in Defense Policy
Dept. of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Graduate School of National Defense Science
Hansung University

Current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powerful country general intention to fight possibility the resources which it decreases remarkably, the possibility of the nation, religion and the terror in compliance with the dispute VIPs of territory etc. is increasing gradually. The Korean Peninsula where the dispute VIP who is complex is being tied in case, in compliance with the national setup which is unusual is North Korea against the south terror is had own way. North Korea during last half a century being cut, all against the south terror to venture without it led and the crisi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instability of Northeast Asia, it culminated it augmented to make. It follows hereupon, the Korean Peninsula peace*It does not see and with the situation which is not the possibility of knowing more to recently in 'agricultural association computer network paralyzes' it is gone up specially with 2010 March 'Ch'onan box width needle event' November 'Yon Pyong-do bombardment event' and it is caused by and the voice of worry is coming to be higher in about

politic characteristic against the south terrorism of North Korea. Also to 2012 years our country and the United States grand election etc.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hange and nuclear security summit talk etc. are prearranged and North Korea adds the element which goes up with the malleability large country this time with the fact that it will venture against the south terror with means of the agreement for. Like this the background against the south terrorism of North Korea must be analyzed bears a justification more concretely. Analyzing against the south terror threat of North Korea our counter-terrorism plan research and it maintains a strong and steady national security attitude it is because is an important element.

It analyzes the feature and a threat of against the south terrorism of North Korea from the present paper consequently and views with to be overlooked the [toy] it provides the single sentry who is the possibility of pointing out to about the actual condition which is omitted and the terrorism of hereafter North Korea and it follows hereupon and with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on a large scale under contributing which prepares the security countermeasure which is strong for an international peace-keeping boil.

Feature of North Korea terrorism it adhered against the south revolutionary strategy and 'national terrorisms which propel a terrorism with policy of national dimension a terrorism with 'political applications which it uses with political propaganda means interest, control measures and foreign activity means'', 'political terrorisms which put a basic aim in the Korean Peninsula communization unity in compliance with a military force', it analyzed.

Feature of like this North Korea terrorism with base change inside of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with the military strategy which does not abandon the aim which is the Korean Peninsula

communization unity it reinforced day by day and the North Korea military power which is going and accomplishment ability etc. before cyberterror of North Korea threat of North Korea terrorism hereafter it viewed escape analytically.

The strategy of against the south terrorism of hereafter North Korea evades the direct participation of the powerful countries and against the south military provocation it will be able to induce their interest an internal union and a military discipline establishment, a threat and an agreement it uses it attempts diplomatically it repeats and in order to continue one maximum duration setup maintenance which is possible without being cut propelling a policy.

Specially,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hange there is a possibility of getting up a terror with North Korea agreement means and is a fair chance, it respects the economy which is severe and a food difficulty etc. internal crisis overcome will venture a physical terror and also the terrorism which uses 'cyber terrorism where the dangerousness is gradually augmented in information age' and psychological warfare etc. it will be able to view with against the south terrorism hereafter North Korea will be able to have own way.

In about against the south terrorism of North Korea which the present paper presents the research beneficially in hereafter prospect, with the fact that it will be applied. The confrontation plan in compliance with researchers of after that in about against the south terrorism which only, is developed day by day it reveals and route it wishes.